'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보고집

평화와 통일 향한 따스한 자매애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135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

.40911
4평
00004135
00

발 간 사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대결의 퇴조, 평화운동의 진전 등으로 반전 반핵 평화의 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만은 일본의 재무장과 각국의 경쟁적 군비확장으로 전운마저 감도는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46년간의 한반도의 분단과 휴전상태는 이 지역 평화에 또 다른 위기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이러한 아시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모여서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동경에서 열린 제1차 토론회는 '우리 여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서울토론회는 아시아 평화의 중추적 요인인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 46년만에 남과 북의 민간인이 최초로 스스로의 힘으로 제 땅에서 만났다'는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통일논의와 정책 모두를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황하에서 서울토론회는 민간인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쾌거이며, 더우기 이 일을 분단조국의 가장 큰 희생자인 여성이 해냈다는 점에서 서울토론회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남과 북의 참석자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포로 모두가 자매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세기의 세월과 서로 다른 이념이 얼마만큼 서로를 다르게 변화시켰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는 점을 남북 모두는 공감하였습니다. 일본측 대표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한반도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 상처의 복원없이는 아시아에 어떤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일본인의 책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토론회는 '통일과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서 우리 여성들이 무언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토론회의 준비과정과 내용, 앞으로의 과제 등을 모아 '자료집'을 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머지않은 훗날에 남과 북의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해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늘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일본측 대표에게 무엇보다 깊은 우정과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려연구 대표 등 북측대표들의 노고와 협조에도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곧 평양에서 다시 만나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1992년 8월 31일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서울토론회
공동대표 이 우 정

이경숙 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대표단 소개

〈북 측〉

◈대 표

려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김선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정명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홍선옥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최옥희
기독교연맹 전도사

◈참 관 인

리연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지도원
정영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정치학 박사)
서금선 려연구 대표 서기
송선영 조선학생위원회 문화부장

◈기 자

강영수 중앙통신사 기자
김남수 중앙방송 기자
최영화 기록영화촬영단 단원
리춘경 중앙텔레비젼 기자
송남수 조선학생위원회 부장
강덕순 평화군축위원회 참사

〈일본측〉

◈대 표

三木睦子(미끼 무쯔꼬)
1968년 11월 아시아부인우호회 회장
1976년 7월 유엔부인회 회장

清水登子(시미즈 스미꼬)
1983년~현재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의장
1989년~현재 참의원 의원

渡邊峯(와다나베 미네)
일본YWCA이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

◈참 관 인

津和慶子(쯔와 게이꼬)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부의장

小川子(오가와 루미꼬)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사무국장

廣瀨札子(히로세 레이꼬)
전 요꼬하마 시의회 의원

高橋美穗子(다까하시 미호꼬)
일본부인회의 중앙본부 「부인신문」 편집부

石井智惠美(이시이 치에미)
1987년 4월~88년 3월 연세대학 유학
1988년 9월~91년 2월 이화여자대학 유학

〈남 측〉

◈ 대 표

이우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윤정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영 접 위 원

공덕귀 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
김옥라 전 세계감리교여선교회 회장
김재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현자 민정당 전 국회의원
박순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박영숙 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정의숙 이화여자대학교 재단이사장
조아라 전 광주YWCA회장
조화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 집 행 위 원

이미경 : 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부회장
김윤옥 : 토론진행위원장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명숙 : 홍보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안상님 : 의전위원장
아시아기독교여성교육원 원장
윤영애 : 재정위원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강성혜 : 문화위원장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부장

경과보고

서울토론회가 있기까지

91년 5월 28일~6월 4일

●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에 남한측의 여성대표 3인(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초청 참가.

(1) 심포지움 주최 : 일본 여성단체(일본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일본여자기독교청년회, 일본부인회)

(2) 모임의 성격 : 일본여성 단체가 실행위원회로서 주체가 되어 남북여성을 초청한 것으로 일본여성들의 의식화를 위한 심포지움이었지만 남북의 지도급 여성대표들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짐.

(3) 북측 대표단 : 려연구(최고 인민회의 상설위원회 부의장, 조국통일 민주주의 노선 중앙위원회 의장), 김선옥(해외협력부 부부장), 정명순(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리연화(조선 대외 문화연락협회 지도위원).

(4) 일본측 환영위원회 : 주최단체의 대표자 및 사회당의 도이 다가꼬, 자민당의 요시꼬, 전 미끼수상 부인 등의 지도자.

● 원래 계획은 없었으나, 후속모임으로서 제2차 토론회를 남측이 주최가 되어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 피력.

(1) 이에 북측이 대환영, 제2차 모임은 서울에서 1991년 10월, 제3차 모임은 평양에서 1992년에 열기로 합의.

(2) 제 2차, 3차 세미나의 주제는 1차와 동일하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로 하고, 서울토론회의 부제를 '여성과 문화'로 할 것을 합의.

6월 7일

● 남측 대표 3인 귀국, 남북여성교류 심포지움에 대한 보고 및 기자회견.

6월 중순경

● 대표3인 통일원장관 면담, 지원을 약속받음.

7월 10일

● 통일원에 북한 주민 접촉신청서 제출.

● 북측의 려연구 의장 앞으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초청장을 발송해줄 것을 통일원에 요청.

(1) 초청인 :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2) 초청대상 : 려연구, 정명순, 리연화 씨 외 2명 포함.

(3) 초청시기 : 91년 10월 21일~26일

8월 20일

● 통일원에 북한 주민 접촉신청 및 지원요청 공문 발송.

(1) 7월 10일 제출한 접촉신청 허락을 8월 31일까지 확답과 북측 대표에게 보내는 초청장 즉시 발송 요망.

(2) 남북교류 기금 중 2천만원 재정지원과 재일 조총련계 여성들의 참관을 위한 입국허락 요청.

8월 27일

● 통일원으로부터 회신

(1) 북한 주민 접촉허가 : 주최측이 제3국을 통해 북측대표에게 초청장 전달

(2) 토론회 일시를 남북고위급 회담 때문에 11월 8일~11월 23일로 조정 요망

(3) 재정지원은 불가.

(4) 재일 조총련계 여성 입국 가능

8월 29일

● 일본을 통해서 북측 대표들에게 초청장 발송.
(1) 초청인 :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2) 수신자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 노선 중앙위원회 의장 려연구
(3) 초청대상 : 려연구, 정명순, 리연화 씨 외 2인

10월 19일

● 려연구 씨 발신으로 초청수락 편지를 일본 부인회 회장 시미즈 스미꼬를 통해 이우정, 이효재 씨에게 전달 요청—FAX로 보내옴

10월 28일

● 려연구 씨 발신으로 전화통지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예비접촉을 제의해 옴.
(1) 일시 : 1991년 10월 31일 오전 10시
(2) 장소 : 판문점 북측 통일각
(3) 파견자 : 북측 대표 3인 (려연구 씨 외 2인)

10월 30일

● 예비접촉에 관한 서울토론회 준비위 측의 입장을 통일원을 통해 북측에 전달.
(1) 일시 : 1991년 10월 31일 오후 3시
(2) 장소 :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
(3) 접촉방법 : 서울토론회 준비위 공동대표 대신 적십자 판문점 연락관에게 접촉 위임.
(4)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측은 북측에서도 대표 3인이 나온다고 하니 남측에서 대표 3인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이 예비접촉 회담에 나가겠다고 강력히 요청.
(5) 그러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안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고 이같은 과정에서 예비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판문점 연락관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음.

10월 31일

● 북측에서 남측의 대표가 직접 나오지 않고 연락관에게 위임한 점에 대해 정부방해로 생각한다는 내용과 함께 31일 예비접촉에 안나가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옴.

11월 1일

● 집행위원회 구성
● 북측,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로 서울토론회 일정 및 실무적 문제에 대한 수정 제의를 서신으로 보내옴.

11월 2일

●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측은 통일원 관계자와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 허락받음.
(1) 직접 예비회담을 허용할 것.
(2) 일시 : 11월 6일(수), 오후 2시
(3) 장소 :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
(4) 남측 대표 : 이우정, 이효재, 윤정옥
(5) 북측 대표 : 려연구 씨 등 대표 3인
(6) 회담 내용 : 일정, 내용 등

11월 4일

● 서울토론회 준비위는 직접 예비접촉을 요청하는 전화통지문을 통일원을 통해 북측에 보냄.

11월 5일

● 예비접촉 일시를 조정, 11월 9일(토) 오전 10시에 직접 예비회담을 갖자는 북측 답신이 도착.

11월 6일

● 북측에 11월 9일(토) 예비회담에 대한 환영의 뜻과 남측 참가자 명단을 전달하는 전화통지문을 통일원 관계자를 통해 전달.

11월 9일

● 남북여성 예비실무접촉을 함.

차 례

○ 발간사 3

○ 대표 소개 4

○ 경과보고 / 서울토론회가 있기까지 6

○ 차례 8

○ 사진으로 보는 서울토론회 9

○ 서울토론회 주요행사 20

개회식 및 환영만찬
토론회 1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토론회 2 / 통일과 여성
토론회 3 / 평화와 여성
폐회사

○ 서울토론회 이모저모 69

○ 서울토론회 평가 93

사진으로 보는 서울토론회

11월 25일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단을 맞이하며



서울로 향하는 이효재 대표와 려연구 대표



아버지(여운형)
묘소 앞에서
흐느끼는 딸 려연구 대표



김포공항에 도착한
일본측 대표

북측, 일본측 도착 기자회견



오정숙(판소리 춘향가 기능보유자)씨와
함께 아리랑 춤을 흥겹게
주는 정명순 대표



환영만찬에서 려연구 대표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이우정 대표





환영만찬석상의 남북대표들

11월 26일

토론회 1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토론 장면





토론회 2 '통일과 여성' 토론 장면

토론회를 끝낸 뒤 한 참석자와 포옹하는 정명순 대표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대표단 일행



통일의 염원이 담긴
오색댕기를 묶는 참석자들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담은
오색댕기를 이은 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모습





공덕귀 여사(윤보선
전 대통령 부인)의 전통가옥
앞에 선 일본측 대표 일행

11월 27일



토론회 3 '평화와 여성' 토론 장면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진지한 모습





여성단체장과의 친교의 밤에서
축배를 드는 대표들



친교의 밤에서 민요를
부르는 정명순 대표와 정영희 수행원



여성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려연구 대표가 한복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이 한복은 남쪽의 옷감과 북쪽의 바느질로 탄생된 '통일한복'이다.

11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둘러보는 북측대표단 일행



남대문 꽃시장을 방문한
일본측 대표단 일행

경복궁을 방문한 남측, 일본측 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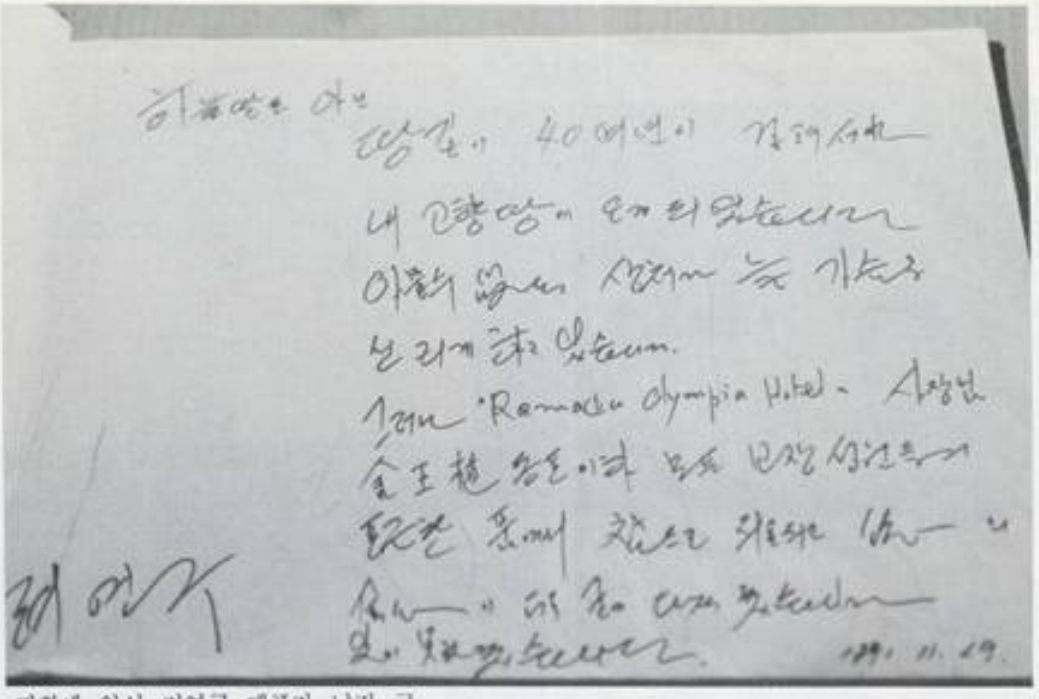
11월 29일



북측 조기 귀환에 대한 남측의 성명서 발표

합의문을 발표하는 남, 북, 일본측 대표





귀환에 앞서 려연구 대표가 남긴 글

조기 귀환하는 북측 대표단 일행을 전송하며



11월 30일



귀국 직전 일본대표단과의 인터뷰 장면

탑골 공원을 방문한 일본측과
남측 대표단 일행



이화여자대학 강당 앞에서 함께 한
일본측, 남측 대표



일본측 대표를 전송하는 이우정 대표



서울토론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여성과 문화—



때 : 1991년 11월 25일~30일
곳 :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서울토론회 주요행사

11월 25일(월)	개회식 및 환영만찬
11월 26일(화)	토론회 1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토론회 2 / 통일과 여성 평화 통일 댕기 묶기
11월 27일(수)	토론회 3 / 평화와 여성 폐회사

분단을 넘어 따스한 자매애 꽃피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는 1991년 11월 25일 오후 5시,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오후 6시경 윤정옥 대표는 "지구상에서 인간은 평화보다는 전쟁상황 속에서 살아왔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 북이 자리를 함께 하여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이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개회선언을 하였다.

개회사 : 윤정옥
경과보고 : 이효재
환영사 : 이우정
환영의 말 : 조아라
만찬사 : 려연구

개회선언과 이효재 대표의 서울토론회가 있기까지의 경과보고가 끝난 다음 이우정 대표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우정 대표는 려연구 대표를 비롯한 북측 대표단 및 참관인, 일본측 대표단과 남측 영접위원들을 소개하였고 이어 조아라 영접위원이 '환영의 말'을 하였다.



환영만찬에서 나란히 앉은 남북 대표. 왼쪽으로부터 려연구대표, 이우정대표, 이효재대표

환영사

평화와 통일의 새역사 향해



이 우 정

오늘 일본에서 오신 손님과 북측에서 오신 손님을 맞이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1974년 일본 동경에서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일본말을 알아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일본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36년간 일본 침략으로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증오감을 처리못한 채 일본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참으로 괴로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30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일본 사람과 일본말에 대한 저항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그 후에 정말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국주의 문화에 철저히 세뇌된 일본이 이웃나라들에게 범한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사죄하고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사람들도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양심세력은 일본사회에서 소수이지만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분들을 참으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일본 자매들은 이런 새역사 창조의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예누리 없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면 일본말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북측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오신 자매들을 구태여 손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손님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친척을 맞이하는 기분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리저리 얼키고 설킨 혈연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외세와 정치가들의 미숙한 처리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제1의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6. 25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 민족적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신념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증오하고 적대관계를 상승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여성들이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짙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는 장을 마련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북측에서 오신 자매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모임이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겉치레의 모임이 아니고 정말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의 말

통일이 바로 여성을 살린다



조 아 라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고 두 민족간의 친선과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일본대표단과 참관인 여러분, 그리고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오신 북측 자매 대표단과 참관인 여러분, 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우리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남측 형제들이 다 함께 느끼시는 감격인 줄 압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의 장벽으로 나뉘어 서로 불안해하고 불신해왔지만 한민족으로 오천년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지니며 살아온 동족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우리땅 삼천리 반도를 자유로이 오가며 한 공동체를 다시 이루고자 갈망하는 피끓는 소원을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만남의 날이 오기를 기도드려 왔습니다. 나와 같은 분단1세대는 이제 70대를 넘어 8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젊은세대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니 꿈만 같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한 체육회나 통일음악회를 통해 막혔던 장벽이 조금씩이나마 뚫리는 듯하여 기뻐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대면할 수 있고 이웃나라 일본여성들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젊은세대와 동족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와 세계만방에 새시대를 열어가는 큰 희망과 새소식을 알리는 국제적인 경사인 줄로 압니다.

더욱이 우리 여성들은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기르는 어머니의 사랑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성 능력은 반목하고 대립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상처를 치유하며 한가족 한공동체를 살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어머니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손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이번 모임이 계획한대로 성공적으로 끝나고 평양에서 다시 3차 모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 만남이 여성단체들의 더 많은 대화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초청하고 서로 오고가다 보면 1천만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7천만 동포들이 자유롭게 만나게 되어 통일을 이룩하는 날이 앞당겨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서울에서 보내시는 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정성이나마 마음껏 받아주시고 쉬이 다시 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환영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

환영사에 이어 참가대표들에게 꽃다발이 증정되었다.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바 있는 윤인숙 교수(단국대학교 성악과)는 '우리는 하나'라는 축가를 불렀으며, 이미경 집행위원장의 행사일정 안내가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만찬에 들어갔다.

환영만찬은 오숙희(여성학 강사)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어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학생들이 실내악을 연주하였고, 서연중창단이 '청산에 살으리랏다' '울산아가씨' 등을 불러 만찬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양승희(이화여대 국악과 강사, 가야금 산조 준인간문화재)씨의 가야금 산조에 이어 무대에 오른 오정숙(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씨는 "90년 단국대 윤인숙 교수와 함께 평양에 갔을 때 대접을 잘 해주셨던 정명순 여사를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고 말하면서 "금강산 신선봉에 손잡고 함께 올랐던 정명순 여사와 함께 춤추고 싶습니다."며 즉석에서 춤출 것을 제의, 무대에서 함께 '아리랑'을 흥겹게 추자 청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러한 흥겨운 만찬의 자리는 남, 북 참가자들의 다소 서먹하고 경직되었던 분위기를 말끔이 씻어버리고 남, 북의 여성들이 하나임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미끼 무쯔꼬 씨가 일본측을 대표하여 "일본이 과거에 한국민에게 저질렀던 실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고 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나가자"며 토론회 주최측에 대해 감사하는 답사를 하였다. 북측에서는 려연구 대표가 나와 "북남의 자매들이 한자리를 하니 목이 메어 말하기가 힘들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만남의 감격스러움을 나타내었다.



환영만찬에서 인사하는 미끼 무쯔꼬대표



북측대표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윤인숙 교수



려연구대표와 이우정대표가 국악연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만찬사

분단을 넘어 따스한 자매애로



려 연 구

존경하는 녀성 대표 여러분!

서울시 각계 인사 여러분!

오매에도 그리던 남녘의 녀성들과 자리를 같이한 이 시각, 저의 심정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북남간에 대화가 시작된지도 어언 스무해, 그동안 북남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만나고 학생들과 예술인들 그리고 체육인들도 서로 오가며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유독 우리 녀성들만이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이렇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우리가 만났으니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 길 없습니다.

저는 상봉의 환희로 가슴 부푸는 이 시각 우리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고 이처럼 화기애애한 자리를 마련해준 토론회 실행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동포 녀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북녘의 녀성들이 남녘의 모든 동포들과 녀성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한 이국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불타는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해외동포 녀성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평화에 대한 높은 지향을 안고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1차 토론회를 성과리에 주최하고 이번 제2차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주신 일본의 저명한 녀성활동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통치 36년간보다 10년이나 더 긴 오랜 세월을 분렬의 비극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북남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이 지속되어 동족이 적이 되고 과도한 군사적 부담을 안은 채 우리 겨레는 또 한차례의 전쟁을 겪느냐 마느냐 하는 항시적인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겪고 있는 분렬의 이 비극은 우리 녀성들에게도 '살아 생리별은 생초목에도 불붙는다'는 말과 같이 세상에 더없는 리별의 오욕을 들씌워 왔습니다.

수수천년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며 단일민족의 력사를 면면히 이어온 우리 겨레가 어찌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욕된 분렬의 력사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분렬의 지속이 민족의 말살을 가져올 전쟁, 핵전쟁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몰아오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을 어느 누가 또한 수수방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더는 우리가 피를 깎는 분렬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녀성들이 한많은 불행 속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자체의 힘으로 통일의 날을 앞당겨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상과 제도를 가리지 말고 한핏줄을 나눈 형제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고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할 내기를 하여서는 언제가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아무리 소중하다 치더라도 민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으며, 민족이야말로 사상과 제도 이전의 것이고 민족의 운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주의주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서로 다른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거늘 우리 민족만이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서로 반목질시하며 갈라져 산다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하나의 민족임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살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여 함께 이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뿐 아니라 능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래전에 백범 김구 선생의 평양방문과 가깝게는 문익환 목사나 림수경 학생의 평양방문을 통하여 그리고 '코리아' 유일팀 선수들에 대한 공동 응원과정에 여실히 체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는 남성이 설 앞자리가 따로 있고 녀성이 따라야 할 뒷자리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자면 녀성의 옳은 자세와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인구의 절반인 녀성들도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오히려 남성보다도 더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녀성들도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족사적 요청에 호응하여 통일의 길에 떨쳐나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녘녀성들은 통일을 바라는 남녘의 모든 녀성들과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서로 만나고 지혜와 힘을 합쳐 통일성업에 함께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가 평화보장과 북남 녀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북녘녀성들의 숭고한 통일념원을 담아 민족의 단결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다같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

토론회 1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서울토론회의 첫번째 토론은 11월 26일 9시 30분 이효재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사회는 이현숙('여성의 전화' 지도위원)씨가 맡아 진행하였다.

발제 : 조 형(이화여대 교수)
토론 : 김선옥(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
와다나베 미네(일본 YWCA 이사)
사회 : 이현숙(여성의전화 지도위원)



발제문



조 형

1.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가부장제란 원래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이 다른 가족성원들 위에 군림하고 통솔하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부장제 하에서는 가족안은 물론 가족범위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식되고 또한 행동의 기준이 된다.

남성가장의 사적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한 고전적 가부장제 원리는 봉건적 경제체제와 유교이념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경제·정치적으로 봉건시대를 훨씬 초월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고전적 가부장제 원리가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었으나 문화로써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문화는 바로 이러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남성에 대한 여성종속을 지속시키는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말한다.

이 주제발표의 목적은 첫째로 현대사회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삶은 어떠한 '여성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둘째로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의 여성,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의 여성들이 어떻게 상호협력하며 가부장적 문화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을까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가부장제 문화가 보편적으로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가부장제 문화는 남성중심적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사람'이라고 할 때 남자를 중심으로 떠올리고, 남자가 하는 일은 '일다운 일'인데 반해 여자가 하는 일은 일같지 않은 일 혹은 사랑과 희생의 봉사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남성중심적 사고의 예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곧바로 남성과 여성간의 존재가치,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연결된다.

가부장제 문화의 두번째 특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는 가치평가에 있다. 생각하고 일하는 능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남성이 담당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자리'에는 남성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가치있는 일과 자리를 독점하고 반대로 여성은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여자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남자들끼리의 세계가 형성되며, 남자들이 끼어들지 않는 여자들의 세계로 분리된다. 이 때 남성세계에는 보다 많은 이득과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 상과 하가 판가름나는 위계적 질서가 정착한다.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여자들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무언의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성세계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의 성'의 집합인 여성세계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생활공간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공적 활동보다는 사적 활동의 체험을 공유하는 세계를 이룬다. 따라서 여성들은 쉽게 개별화된다.

세째로 이와 같은 남성세계와 여성세계의 분리,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가부장제 문화의 또다른 면모들이 있다.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과장하는 '남성다운 남성' '여성다운 여성'의 양분된 모형이 그 하나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부터 남자는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서 남성세계에서 성공하는 성품과 능력을 지니도록, 여자는 순종적이고 수용적이어서 남성세계에 도전하지 않는 성품과 포용력을 지니도록 분리된다. 이렇게 키워진 남성과 여성은 가부장제 문화에 순응하면서 똑같은 문화를 전승하는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여성이 종속되고 억압되는 객관적 현실은 여성다운 성품과 여성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미화로서 은폐된다. 숭고한 여성, 양보와 사랑과 희생의 미덕 등의 미사여구는 여성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남성지배의 문화를 수용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만든다. 동시에 남자들로 하여금 하등의 문제의식없이 여성에 대한 억압적 행동을 일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가부장적 문화의 특징들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범주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범주로서 우월한 성과 열등한 성, 지배하는 성과 종속되는 성의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럼 여기에 몇가지 더 언급해 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는 '보편적'이라는 말이 타당성이 있다든가 영구불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부장제 문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부당한 것이며, 또한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로 보편적인 특성이 각 사회에서 현재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그 사회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 지역 혹은 전통적, 유교적인 특수한 보편성이 있겠고 남한, 북한, 일본에 각기 다른 가부장제 문화의 특수성이 나타날 것이다. 끝으로 위에 언급한 가부장제 문화의 보편적 특징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을 강조한 면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문화와 남성의 여성지배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가 지닌 모순적 성격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에서 여성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가부장제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다루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다음에는 북한·일본 혹은 다른 아시아 사회에 비해 발표자가 더 익숙한 남한사회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가 어떠한 행태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성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부장제 문화의 사회적 현실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2. 남한사회의 여성

분단 40여년간 남한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양대 이념으로 하여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처음 10여년 동안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94만원(미화 5.570달러)인 경제중진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경제생활, 교육, 문화 각 방면의 생활수준에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했으며 그 변화가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지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래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제 문화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신장하는 여성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그 실제를 법적 지위, 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법적 지위

1948년 제헌헌법 이래 모든 법의 조건이 된 헌법은 인간평등과 기본권 사상에 근거하여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여성이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여성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치적·공적 영역에서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 및 양성평등이 보장된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대로 사회가 구성된다면 가부장제 문화는 이미 불식되었어야 한다. 그

렇다면 가정에서나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는 헌법의 정신이 다른 제반 법률에 충실히 담기지 못하였거나 둘째는 평등법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두가지 모두가 여성의 법적 지위를 불평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모든 법률에서 평등을 기하기 위해 법개정 내지 신규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은 실제생활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초보적인 과제라는 데에 여성들은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들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1960년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수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이 있었고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관행을 제거하는 운동, 그 결과 모성보호와 고용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탁아입법을 위한 노력과 성취 등은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가 된다. 현재도 가족법에 아직 남아 있는 남녀차별 규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 성폭력 추방을 위한 입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인 헌법과 그 하위법들간의 괴리는 건국 이래 통치집단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의지가 결여됐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법을 개정한다거나 제정하는 경우에도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가 앞서거나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점은 통치집단 자체가 가부장적 사고에 물든 남성지배집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항하는 여성들이 하나씩 둘씩 법적 동등권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을 보인 것은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앞으로는 법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넘어서 법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로도 관심을 넓혀 여성의 법적 지위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 경제적 지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능력에 따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누구나 개별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권은 두가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나 소득이 그 사람 또는 가족의 생존에 기초자원이 된다는 점이다. 즉 개별가족의 생계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과 소득의 양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목적이나 직업활동에서의 성취는 개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추동력이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혹은 직업활동은 노동 자체의 가치보다는 생존과 사회적 지위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성의 객관적인 지위를 가늠하는 데에서도 경제적 척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체 사유재산 가운데 얼마를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면 우선 여성의 취업활동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현재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40.4%인 726만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남성(75% 전후)과 비교하면 적지만 가정밖의 활동이 여성에게 금기

사항으로 인식되던 과거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고 1985년의 37.2%에 비해서도 증가를 보인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기혼여성의 노동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도 큰 변화로 본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사실이 곧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는 곤란한 면들이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1989년의 취업자 713만 가운데 25.5%는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최근들어 시간제 고용이 증가되면서 임시고용자의 비율은 12.8%나 된다. 여성취업자의 1/3 이상이 무보수 노동자 내지 고용불안정 노동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취업하는 분야에서도 여성이 집중하는 분야와 남성이 집중하는 분야가 구분되는데 여성은 대체로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인식된 분야(간호사, 전자계통의 부품 조립공, 판매원 등)와 영세규모 사업체(1~4인 규모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4.6% 집중)에 집중되고, 높은 지위에 승진하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여성이 집중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현실적 이유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여성을 배제한 남성세계와 여성세계의 분리를 지속시키는 가부장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1989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임금이 33만 6,578원(미화 약 480달러)으로 남성의 평균임금 63만 9,578원(미화 약 914달러)의 52.7%이다. 직종과 직책에 따라 성별 임금차이는 다르지만 여성은 여러가지 합리적·비합리적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가질 수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나 남편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므로 경제적 자립이 여성의 자율성 획득에 기본조건이 된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평등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여성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투쟁, 노동자의 모성보호 실현, 그리고 고용, 승진과 임금에서의 평등권 획득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라는 일차적 결실을 보게 하였다. 이 법은 노동시장 내의 채용, 임금, 승진, 해고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특히 소득과 명망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여성은 직종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직장의 꽃'으로 '가계의 보조자'로 인식되며 개인의 직업적 성취보다는 가정일에 충실할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요구받는다. 그리하여 기혼여성이 가정의 임무를 취업에 우선하도록 만들고, 가족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가정일과 병행하는 조건에서만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또다른 이유는 탁아시설이나 기타 가정복지를 위한 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탁아법이 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부족한 탁아시설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 노동을 중단하거나 시간제 일을 하도록 강제하며, 계속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활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과 연결된다.

(3) 가족에서의 지위

남한 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변화의 소용돌이는 가족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예전과 달리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탄식하는 남성들을 볼 때 그 변화양상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내에서 생산하던 많은 물품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상품시장의 확대로 집에서 만들어 쓰던 일상용품은 물론 전에는 쓰지도 않던 새로운 상품들을 시장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의복은 집에서 바느질해 입지 않는 품목이 되었고, 다양한 가공식품과 식당은 주부들에게 편리하게 애용되고 있으며, 세탁소를 이용하는 빈도도 늘어났다. 새로운 생활용품과 편리한 전자기구들이 가전제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제공되어 일손을 덜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간의 분업이나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먼저 가정내에서의 성별분업은 여전히 뚜렷하다. 모든 가족원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이며, 가장 사적인 영역이자 여자의 영역이라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개별 가족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족생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이 져야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내에서의 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도록 보편화시킴으로써 가정내 생산에서 여성은 직접생산자로, 남성은 전유자로 만든다.

남성들이 하루 종일을 가정 밖에서 보내는 동안 여성은 가족의 저축과 소비 등 재정을 관리하고 가족원을 돌보면서 자녀를 감독, 교육하는 일을 도맡게 됨에 따라 전체 기혼여성 중 절반가량은 전업 가정주부가 되고 있다. 가정일을 돌 볼 여유가 없는 남성이 가장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가장권의 일부가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이양되어 가정일에 관한 한 여성이 책임자이자 권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산이나 가족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는 남성이 최고권위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하지 않은 주부보다 가사역할을 담당하는 비율이 적지만 취업주부의 70% 이상이 청소, 빨래, 장보기,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상적 집안일을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관념은 취업 주부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준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반수가 되는 취업주부들은 똑같이 일을 마치고도 남편은 안식처로 귀가하는 데 반해 또다른 일터로 귀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이중노동이 점차 문제시되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시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가정에서 동등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를 함께 기르는 중국 상해식의 '앞치마 두른 남편'이 서서히 늘어날 전망이다.

남아선호는 또 다른 가부장제 문화의 유산

이다. 부계부권 가족이념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과 결합되어 여성들에게 아들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기술발달로 산아제한이 가능하게 되자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져도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하여, 0~14세 사이의 여아와 남아의 비율은 현재 100 : 108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정이 사적인 영역이고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가 친밀한 사적관계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성운동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최근 문제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문제를 들 수 있는데,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반수가 남편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내에서의 폭력이 집안일이라 하여 국가와 사회가 외면하는 것은 더이상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여론화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그 자체가 피해여성에게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을 지배, 유지하는 기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4) 분단과 가부장제 문화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 이외에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난 많은 여성문제들이 우리에게 연구와 토론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리고 여성들은 스스로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기업과 투쟁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일들은 남한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한때는 정부에 대한 여성의 비판과 요구가 분단논리와 연결되어 의심의 대상이 된 적도 있지만, 이제는 남한사회가 적어도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재를 하거나, 정부에 우호적이 아니라 하여 권위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 입법부에 여성의원이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도 그 한 예가 되지만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의 지배하에 있어서 여성들의 과감한 요구와 행동이 도처에서 저항에 부딪치곤 한다. 남한사회에서 가부장제 문화와 위계질서를 강화해 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은 물론 전쟁 이후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한시도 벗어나지 못한 전쟁의 위협이 한민족의 비극임은 누구나 애통해 하는 일이다.

이제 감정적 애환을 접어두고 분단상황과 가부장제 문화의 관계를 논의해 보자.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적대관계는 양쪽 사회에 모두 지나친 군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는 물론이고(방위비가 197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정부재정의 30% 이상으로 지속되어 왔다) 심적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군대나 전쟁이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 때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대부분 그 영향은 남녀평등의 실현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즉 가부장제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선 그런 사회는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남성상을 우월한 가치로 강조하고 그 반대로 여성을 나약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한다. 둘째로 가시적·비가시적으로 물리력과 폭력이 묵인화되어 여성은

더욱 약한 존재로, 성적인 존재로 축소되기 쉽고 또한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정당화하게 한다. 끝으로 군대의 경직되고 엄격한 위계조직이 사회조직의 모형으로 정착되기 쉽다. 이런 위계질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친화력을 지니고 상호 강화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강한 남성들 대부분이 군대경험을 해야 하고 퇴직 직업군인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군사문화의 확산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난 40년간 남한사회의 군사문화는 정치·행정·경제·교육·문화 각 분야에 침투하여 가부장제 문화를 강화하는 데에 큰 몫을 하였다. 따라서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여 여성이 남성과 진정한 사회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도 분단과 전쟁과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가 된다.

3. 가부장적 지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남한사회 여성들의 생활과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객관적 위치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북한이나 일본의 여성들도 가부장제적 경험에 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체제와 국경을 넘어 여성의 이러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을 논할 때가 왔다. 이번 서울토론회가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여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면서, 토론을 위해 몇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이 제안은 한민족의 통일을 당위로 받아들이면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이 각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자는 것이다.

첫째는 남과 북 두 정부간의 통일을 위한 회담에 여성대표를 내는 일이다.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며 이 여성대표는 정부의 대표이자 동시에 여성의 대표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남쪽 여성들이 열심히 해 왔듯이 각 사회에서 가부장제 문화와 남성지배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가부장제의 극복없이는 통일이나 어떤 다른 정치적 변화도 결코 남녀평등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향상은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세째 한세대가 넘는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과 북간에 형성된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에 여성들이 앞장을 서는 일이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우리들의 경험과 정서를 교류할 때 동질성이 확인되고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통일이 언제될 것인가의 시기에 상관없이 이러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네째로 남과 북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정신대 피해여성을 위한 사업이 그 중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여성들의 교류가 생활에도 서로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하는 일이다. 예컨대 명절을 기하여 서로간에 귀한 물건을 교환하는 사업 등은 추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여성들이 남성세계의 권력다툼이 아닌 생활의 지혜와 정서와 애정으로 결합할 때 통일은 여성과 민족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시아의 평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토론

토론 1



김 선 옥

오늘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분단사상 처음으로 북남녀성들이 제 나라 제 땅에서 이런 토론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 무척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역사적 자리를 애써 마련해 주신 분들과 이 토론회를 적극 지지성원해 주신 북남의 녀성과 해외녀성, 그리고 모든 진보적 일본녀성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방금 조형 교수의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발표를 주의깊게 들었으며, 남조선의 현실에서 매우 가치있고 의의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의 문제는 인구의 절반인 녀성이 낡은 사회의 관습과 유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맡으며 녀성의 거대한 힘을 통일 성업을 위해 어떻게 바칠 것인가 하는 그 현실적 방도를 찾아가는 데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론회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의 방도를 찾는데 오늘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 문화와 녀성문제는 인구의 절반인 녀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문제이고, 녀성의 사회적 해방과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부장제 문화'는 가부장제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되어온 부정적 문화입니다. 그런데 주제발표에서는 이것이 계급을 토대로 한 게 아니고 남녀간의 성별에 기초한 남성의 녀성에 대한 지배로 보며, 따라서 사회 관계의 기초를 남성에 의한 녀성억압의 체계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부장제는 원시 공동체 말기에 사회적 분업, 즉 농업으로부터의 분리에 따라 정기적 교환, 사적소유제에 기초하여 사회 생산력이 높아지고 노예제가 비교적 급속히 발생한 시기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 자체는 아니고 가부장제 문화의 유산으로서 각양의 제도 및 여러 생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부장제가 봉건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급적 지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억압체계가 녀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곤궁, 고통을 가져왔고 녀성들에게 인신적 속박, 정치적 불평등, 남성에 의한 가족적 속박 등 여러가지 억압과 구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삼강오륜이 가부장제의 사상적 지주로서 중시되어 왔고, 녀성의 참여는 고사하고 녀성의 문밖 출입도 금지했으며, 녀성을 안방에 가두어 녀성을 산아도구, 가정노예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식민지 나라의 녀성들은 여기에다가 민족적 억압과 멸시가 더해지는데 조선인민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치하에서 온갖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받았으며 녀성에게는 더욱더 심한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녀성에게 참기 어려운 치욕을 강요하여 젊은 녀성을 강제로 군수공장 산업시설에 끌어가고, 태평양 전쟁 시에는 수십만명의 녀성을 전쟁 사상 유래없

는 천황군대의 성적노리개로서 전쟁터에 내모는 치떨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녀성에게는 남성에 의한 인신적 속박과 사회체제로부터 받는 억압, 식민지 종주국으로부터 받는 민족적 멸시가 씌워졌으며, 따라서 녀성해방에 있어서는 이 세가지 과제의 해결이 중심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인신적 구속이 순수히 남녀의 성별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권제가 부권제로 이행되면서 가부장제의 낡은 유물을 이어받은 사회제도 자체에서 생긴 것이며, 계급적 압박도 통치자들이 그들의 계급적 지배에 유리하도록 녀성에게 정치적, 법률적 무권리를 강요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국주의자의 침략이 없으면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발표와 같이 가부장제 문화를 남성문화로 보고 남성문화는 군사문화, 군사문화는 대결·충동의 문화로 보는 것은 겉만 보고 속을 안 보는 현상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8.15 이전의 동일한 상황에서 제기되었던 녀성문제는 오늘에서는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남조선은 미군주둔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로 되었고 이로 인한 녀성문제가 제기된다면, 북조선은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회제도하에서 모든 녀성들이 남성과 같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사회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녀성문제는 사회적 해방이후 수행해야 할 과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북반구 공화국은 일제에서 해방된 후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녀성을 식민지 착취와 봉건적 압박에서 해방시켰으며 따라서 녀성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사회적 불평등과 인신구속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째로 북반부 녀성은 주권행사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인 우리 녀성은 남성과 같이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에서 녀성 대의원은 총수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인민회의 대의원회에서 24%를 차지함으로써 녀성은 정권의 주인으로서 남자와 똑같은 사회정치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녀성들은 남녀간의 완전한 법적인 평등을 이루었으며 사람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녀성들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서 똑같이 참여할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해방 후 1946년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되었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시행되면서 평등, 모성과 어린이 특별보호, 결혼 및 가정의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녀성의 참다운 생활과 사회적 진출을 법으로써 확고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모든 녀성에게 희망과 재능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철저한 모성보호제를 실시하며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불하고, 15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완전한 무료치료에 의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975년 어린이 보육계양법, 1980년 보건법에서도 녀성을 특별히 보호하여 녀성은 사회 각 분야에서 47.5%나 차지할 정도로 수많은 녀성이 국가 사회활동에서 생산자로서, 간부로서, 과학·교육·보건의 역군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조선에서도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등 일련의 사회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러나 남조선 녀성은 교육·모집·승진·배치 등에서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지위에 있고, 대졸 이상의 녀성 박사들에게도 성적 차별이 심하며 또 이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녀성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문제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실제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8.15이후 지금까지 장구한 기간 녀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성차별의 근본요인이 제도 자체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만 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세째로 북반부에서는 녀성의 인신적 구속등 사회의 온갖 낡은 제도를 청산함으로써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육시장제, 남녀 불평등을 강요하는 부패하고 낡은 제도를 청산하였고, 이제 녀성해방을 실현한 우리는 주체사상을 우리식 사회주의에 맞게 도입하여 녀성의 지위를 높이려는 과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녀성해방은 녀성이 낡은 사회가 남긴 질곡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중노동과 경노동,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녀성을 가정의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3대 기술혁명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가부장제 문화의 부당성을 똑똑히 밝히고 녀성해방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여 그것이 녀성해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구의 절반인 녀성이 사회와 역사앞에 떨쳐 나서서 아시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에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

토론 2



와다나베 미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이 모임에 초청받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 눈물을 머금고 사과한다.

나는 1930년생으로 군국주의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국주의 교육 안에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제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힘을 뿌리로 하는 교육이었다. 나는 어린아이였었지만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언제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다. 그러한 것이 식민지라는 악을 낳은 뿌리가 되는 체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나중의 일이다.

강한 남성의 논리, 강한 자의 논리에 녹아들어가서 나도 여성이기를 버리고 남성이 되려는 인생을 살아왔다. 열다섯살에 패전을 맞이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2~3년은 허무주의에 빠졌고 그 안에서 기독교를 만났다. 왜 이러한 사회가 되었는가라는 회의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 잘못을 범하지 않아도 사회가 죄를 범하는 구조일 때는 어쩔수 없이 함께 죄를 범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이다.

남측 이우정 대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한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역사교육 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일본에서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남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 가부장제라는 사회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적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작년 세계 YWCA총회에서 강연이 있었는데, '여성의 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나 소유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힘(가능성)의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가능성의 힘을 가지고 있고 가져야 한다는 강연의 내용이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 서로 나눌 수 있는 힘, 약한 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힘, 말의 힘, 적은 돈을 서로 모아 큰 돈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나 사람들이 특별한 지배적인 지위에 있으며, 다른 나라 혹은 사람이나 집단을 지배할 때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세아의 평화'라고 할 때 나는 우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힘이라는 뿌리와 문화를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과 북의 여성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힘이 합해져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질의응답

사회 :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하신 질문지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대표적인 질문만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북측에서는 여성이 취업함으로써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가사노동 부담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 북에는 '생활의 꽃이라네'라는 노래가 보여주듯이 여성을 꽃에 비유하고 있는 반면, 남에서는 '여성은 직장의 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에서 보고 있는 꽃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김선옥) : 우리 공화국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녀성은 가정에서 부드럽고 현숙하지만, 녀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면 녀성이 가사에만 투자할 수 없으므로 남자도, 아이들도 가사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도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동지적 관계에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이의를 제기한 꽃의 비유는 매우 흥미롭군요. 우리 공화국에서는 녀성을 가정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비유합니다. '안해'란 녀성이 한 가정안의 햇님이고 녀성은 어머니로서 가족을 알뜰살뜰하게 보살펴준다는 뜻입니다.

또 행복도 녀성이 다 가져오기 때문에 녀성을 행복의 꽃이라 부르며, 녀성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므로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나라의 꽃이라고 하는데 남성들이 녀성을 존중하고 굉장히 높히 본다는 의

미입니다.

질문 3 : 모성성에 대한 양면적 평가가 있는데, 가부장제에서 지양해야 할 모성성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대답 (조형) : 모성에 대해 발표할 때는 모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어머니 세대나 저희 세대에서 모성이 여성을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성은 출산 양육에서 나오는 사랑의 의미를 갖지만 모성이 너무 미화될 때 모성은 여성을 다시 얽매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모성이 사회적 모성이 되지 못하고 자기 식구를 위한 모성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모성은 부정적입니다.

바람직한 어머니상이란 어린이를 건강한 성인으로 만드는 어머니여야 하며 동시에 나아가서 가족, 사회, 나라,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북측에 대한 질문만 쏟아지고 있는데 일본측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 천황제의 존속과 가부장제에 대한 관계, 그에 대한 여성계의 움직임을 설명해 주십시요.

대답 (와다나베 미네) : 천황제는 가부장제의 뿌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 YWCA 등이 천황제를 반대하면 회원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단체는 여간해서는 천황제를 반대하지 않고, 소규모 단체에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가부장제의 부정적 측면을 말함으로써 천황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 천황제가 가부장제의 뿌리라고 인식하신다면, 이에 대한 여성들의 구체적 대응은 어떠한지요?

답변 (와나나베 미네) : 작년에 걸프전 파견 문제 등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여성들이 대처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일 '평화와 여성' 주제발표를 통해 시미즈 대표로부터 더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운동은 정신대 문제인데 정신대 문제는 지금 일본내에서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인정하도록 힘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



토론내용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참가자들

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 문화, '가장 강한 것이 좋다'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한 것, 큰 것에 대한 가치부여에는 반대하고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하느냐로 문명도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성을 소중히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의 뿌리이며, 작은 것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성도 사회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데 자연도 생명체임을 강조하고 인간이 자연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데서 여성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환경문제가 중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문 6 : 동구를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남녀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여성교육에서의 미해결문제 등에 있어 북한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김선옥) : 북측은 녀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려연구 씨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일하는 것처럼 녀성도 남자와 똑같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도 녀성은 소양에 따라 취업할 수 있고 마음껏 경제생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구속, 예속없이 평등합니다.

질문 7 : 북에서 여성이 화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한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보다 여성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을 일찍 퇴근시켜서 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김선옥) : 녀성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녀성에 대한 국가적 혜택으로, 녀성에게 부담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녀성이 가정적 부담을 많이 지고 있으므로 녀성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녀성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녀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이고 혜택입니다.

녀성의 미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남성들이 자기 부인이 아름다워지길 바라고 또한 녀성이 더욱 아름다워져야 사회가 환해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석님도 '녀성이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8 : 여성 취업이 특정직업 즉 간호원, 유치원 보모 등에 국한되는 등 직업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답변(김선옥) : 직업 분리현상이라고 보지 말고 국가가 녀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탄광, 막장 등 힘든 노동을 요하는 곳에 녀성취업을 극히 제한하도록 국가가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요. 그러나 간호원, 미장원 등에서는 녀성이 재간있고 또 손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적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직업 분리현상은 아니라고 보며, 이런 것은 녀성다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녀성이 물론 남성보다 사상력이 낮아서(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안됐지만) 이를 높히려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19%나 녀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질문 9 : 봉건제 사회의 유제로 남아 있는 가부장제 문화의 유물은 없는지요.

답변(김선옥) : 우리사회에서는 녀성에 대한 인간적 구속, 정치적 불평등, 남성에 의한 녀성억압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질문 10 : 남한에서는 성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북의 성폭력 문제나 성윤리는 어떠한지요.

답변(김선옥) : 성폭력 행위나 그런 사건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일처제 하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지적 관계이며 강간이나 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덕 교양을 실시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사회적 조처를 취



남측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는 북측의 정명순대표(좌)와 홍선옥대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국가에서 보호하며, 나라의 왕으로서 양육하므로, 모든 사회인들이 어린이를 나의 자식으로 생각하며 대합니다.

질문 11 :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은 없다고 보는지요.

답변(조 형) :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반면 남성도 여성보다 항상 우월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남성은 울어서도 안되니 얼마나 심리적으로 억압받고 있겠습니까? 남성을 가까이서 보면 한심스럽고 미성숙해 보이는데, 바깥에서 남성다움을 펼치려 하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는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편으로 남성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불편도 덜어주고 여성도 해방되도록 가부장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12 : 최근 북에서 가족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김선옥) : 46년 만에 처음 와서 여러분과 만나니 오해되는 점도 있고 의문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남 속에서 오해와 불신이 풀릴 것이라 봅니다. 오늘 이 곳에서 친근하게 북측 자매라는 말을 들으니 상당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공화국에 와서 토론회를 하고 여러가지로 많이 보고 나면, 제가 지금 한 말이 빈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동지적 협조 관계에서 이뤄지지요. 우리는 결혼, 가족운영, 자녀양육, 사회진출 등 모든 면에서 국가법의 보호아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몸이 불편하고 목이 굉장히 아파서 말하기 불편해 양해를 구하고 싶고, 앞으로 체류기간 동안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단위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3 : 일본의 천황제와 가부장제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답변(와다나베 미네) : 오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은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는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지요. 대충 말해서 강한 엄마에게서 약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서 늘 남성이 되고 단체장도 남자만 됩니다. 또한 훈장, 장군이 명예로 간주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가부장제와 천황제는 연관이 있습니다.

질문 14 : 북측에는 학교에 남녀차별의 관행이 있는지요?

답변(김선옥) : 우리 사회에도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딸들도 필요하다. 아들은 장가가면 자기 부인밖에 모른다'며 딸 낳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모 자체가 아들 또는 딸을 낳아야겠다는 관념은 없습니다. 탁아소, 소학교, 인민학교 등 11년의 의무 교육과정을 통해 남녀차별이 없으며,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있고,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질문 15 : 북측의 전업주부, 직업여성의 실태는 어떠한지요.

답변(김선옥) : 집에서 가사노동만 하는 녀성도 있지만, 직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허약해서 일시적으로 가사일만 하다가 다시 사회에 진출하며,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가사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녀성들은 인민반에 속해서 자원적 노동을 하여 사회적으로 유익한 조그만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통일 거리를 건설할 때는 가정의 녀성도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녀성들이 반별로 모여서 노동자를 위한 장갑만들기 등을 합니다.

질문 16 : 정신대 문제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가부장제와 군국주의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일본이 주도하여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켜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요?

북측에서도 남측과 같이 정신대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운동으로 펼쳐갈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와다나베 미네) : 이는 아시아 전체로 확대시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YWCA등 여성단체에서 기록을 모아 그 문제에 대해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잘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의 관심이 전체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는 세명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성을 성적 착취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인간으로서 일본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괴롭지만 재판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신대 대장이 사할린 재판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때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인간사냥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일본인 대장이 나이 어린 여성들을 공장 보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45년이 지난 지금 너무 뒤늦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이를 문제제기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이니까 그 사건의 원고가 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갖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여성단체와 한국여성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 여섯가지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보냈으며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일을 합시다. 남성들이 끌려가서 전범으로 처벌당한 것도 함께 취급해야 하며 앞으로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답변(김선옥) : 20대의 처녀가 천황의 노리개로 봉사하는 것은 이제까지 어느 력사에서도 전혀 유래가 없었던 일입니다. 전투 직전



일본측의 미끼 무쯔꼬대표(좌)와
시미즈 스미꼬대표

일본군인들의 오물처리를 위해 한 녀성이 한 번에 70~100여명에게 성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성기가 해지고 해져 딱지가 앉았고 벼룩이 앉아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녀성에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 격분을 누를 수 없게 만드는 이 정신대 문제는 전체 조선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아내야 하며 일본은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답변(조 형) :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몇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이 많고 잘 모르는 사회가 북쪽이라는 것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대화를 트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가부장제가 봉건제사회, 자본제 사회, 사회주의와 어떻게 결합했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가부장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생각하며 연구하고 읽고 들으면서 북한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연구 발표자리도 아닌데 북측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 얼음이 다 녹은 것도 아닌 만큼 남북이 서로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것만도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발표는 자체 비판적이었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이나 정부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지만 나는 어디서나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며 이 자리라고 해서 다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부끄러운 점을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자꾸 노력하면서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길고긴 길의 좋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75년 중반까지는 여성문제에 대해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정말 여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여성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녀성문제는 그 개념이 북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 어머니」라는 책에서 서양사람이 모스크바 여성과 한 이야기가 상기됩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서양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자 '그럼 이게 평등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해하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에서는 여성학적 이야기를 바닥부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토론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마칩니다. ●

토론회 2

통일과 여성

'통일과 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 2'는 한명숙(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홍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시간 관계상 원래 예정된 야마구찌 미야꼬 씨의 발표가 생략되었음을 알렸다. 북측 정명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일본측 히로세 레이꼬 씨와 남측 이경숙 씨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발제 : 정명순(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토론 : 히로세 레이꼬(전 요꼬하마 시의회 의원)
이경숙(숙명여대 교수)
사회 : 한명숙(한국여성민우회 회장)



발제문



정명순

조국통일은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지상의 과제이다.

조국통일이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가 되는 민족단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온 민족이 민족으로서 존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주권을 확립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에서는 우리 겨레 모두가 공통할 수 있지만 구체적 감정에서는 남성들이 통일에 대하는 감정과 우리 녀성들이 통일에 대하는 감정이 꼭 같다고 할 수 없다.

조국통일 문제에 대하여 론할 때 남성들은 보통 범상한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우리 녀성들은 눈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과연 통일이란 무엇이기에 그것을 외우며 우리 녀성들은 눈물을 짓는 것인가. 도대체 통일이란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 녀성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고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인가.

그것은 통일이 우리 녀성들의 운명과 잇닿아 있고 조국의 운명과 련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다. 분단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녀성들은 부모자식들과 생리별당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도 잃었다.

조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우리 녀성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림수경 학생이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절규가 지금도 귓전에 울려온다.

사실 통일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조국이 없으면 우리 녀성들의 행복도, 밝은 미래도 생각할 수 없다. 통일이야말로 조국을 살리고 우리 녀성들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녀성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겨레이며 여기에서 우리 녀성들은 절반력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통일문제 해결에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한 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주역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녀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량적인 의미에서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지향이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통일위업에 적극 투신해 나서고 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46년 7월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된 후 모든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뿐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나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서 20%를 차지하는 138명이나 되며 그밖에 녀성과학자, 전문가들은 35%, 녀성의사는 44.8%, 녀성교원은 56.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는 모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에 3만 7천개의 탁아소와 2만 3천개의 유치원을 꾸려놓고 여기서 350여만명의 어린이들을 국가부담으로 키워주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정치인, 경제전문가로, 학자, 예술인으로, 숨은 공로자로 자라나 우리식 사회주의를 꽃피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8·15에 진행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때 각 지방에서 선출된 1,000명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텔리 대표들 가운데서 녀성들이 무려 450여명이나 차지하여 대회를 훌륭히 장식하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고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애국자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많은 녀성들이 영예의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았거나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어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녀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높여주며 녀성들이 사회정치 활동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할 때 사회적 진보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녀성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애국운동의 대오에는 언제나 녀성들이 앞장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주, 민주, 통일에 바친 남조선 녀성들의 위훈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년간 해외동포 녀성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8.15에 진행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2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해외대표들 가운데는 녀성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녀성들은 낡은 가부장적인 속박의 울타리 속에서 사는 연약하고 힘없는 녀성들이 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중심에 뛰어들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력사발전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오늘에 와서 우리 녀성들은 통일을 위한 단순한 잠재력량이 아니라 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주체로, 기본력량으로 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 녀성들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이 더는 우리 겨레의 념원이나 단순한 미래상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조국통일은 오늘 우리 앞에 의미있고 락관할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함께 다같이 공감해 마지않는 통일의 시간표까지 정해져 있다.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이 구호는 북과 남, 해외가 다같이 외치고 다같이 실천해 나가는 통일의 리정표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고 있지만 전쟁의 위험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 대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열리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화근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핵사찰'압력을 공공연히 가해 나서면서 그 무슨 '군사적 제재'까지 가하겠다고 떠들므로써 사태를 더욱 위험한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

만일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 민족은 또 한차례의 전쟁, 핵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겨레는 멸종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도 무의미하게 된다.

공화국 북반부는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평화발기를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측에서는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하는 제안들을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핵 위협은 미국이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데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한다면 아무때나 핵 담보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평화발기와 제의들은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부정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가 찾은 교훈은 평화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으며 또한 구걸하여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평화는 오로지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진취하여야 한다.

투쟁으로 얻은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담보있는 평화이다.

우리 녀성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불가침선언을 체택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며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평화적 전제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방도란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것부터 확정해야 온 민족의 통일운동을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통일방도를 찾아내고 전민족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필수적 공정이며 어차피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분렬된 나라들에서 통일을 실현하는 방도에는 두개 국가가 병존하면서 장차 제도적 통일로 나아가자는 방도와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그 테두리 안에서 북과 남의 두 제도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자는 두 가지 방도가 있다.

제도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장은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거니와 그보다도 부정적인 측면들이 매우 많다.

련방제 통일방안의 기본내용을 보면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동수로 련방정부를 구성하며 그 밑에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지역 자치정부를 내오되 잠정적으로는 두 지역 자치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련방국가 창립방안은 민족과 제도 가운데서 어디까지나 민족을 우선적인 자리에 놓고 전개한 통일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그 자체가 갈라진 국토와 겨레를 하나로 합치는 민족문제이지 결코 제도문제는 아닌 것이다.

여기서부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 제도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변하게 된다.

북과 남은 엄연히 민족적 공통성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엄연히 동질적인 것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로 말하면 그것은 46년 동안에 형성된 것이지만 민족적 공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뿌리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을 최우선적 지위에 놓고 론리를 전개하여야 하며 제도를 앞에 내세우거나 그것을 우위에 놓아서는 안된다.

만일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면 불가피하게 통일문제를 리념적 대결, 사상적 대결의 론리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일문제를 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불행한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련방국가 창립방안의 우월성과 합리성은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누가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평화적

인 방법으로 순탄하게 해결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방안은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찬동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현실적으로 련방제 통일방식을 부정하고 제도 우선론, 리념 우선론에 기초하여 제도통일을 주장하는 론리도 존재하고 있다.

북과 남에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두개의 제도가 존재하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형편에서 한 제도를 청산하고 다른 제도를 거기에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차피 힘의 대결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민족내부에서 재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빈부의 격차를 모르고 다같이 고루롭게 먹고 입고 쓰고 살며 무상치료, 무료교육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누구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우리식으로 가꾸며 빛내어 나가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우리는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이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이것을 절대화하거나 우리 것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에 유익하고 토의의 기조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누구의 제안이든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도 야당과 재야에서 련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련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에는 내용에서 일부 우리와 차이나는 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련방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근본 립장에서는 우리와 상통하므로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조선의 재야와 일부 야당들은 여기에 호응하였으나 다른 정당들은 부정적 립장을 취하였으며 당국은 '국론 분렬'을 위한 대규모 군중집회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에 나섰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협상회의는 결코 군중집회와 같은 회의가 아니라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 정도의 대표들이 련좌하는 적은 규모의 수수하고 소박한 협상을 념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고립시키고 누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없다.

온 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통일문제는 어느 일방을 고립시키고 타방을 끌어당겨 다수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의 만장일치의 합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과 남 녀성들이 조국통일 방도를 같이 모색하고 확정하려는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나는 우리 녀성들도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공동으로 연구, 모색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주장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우리 녀성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자면 무엇보다도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 의식화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나선다.

조국통일은 그 주체인 민족성원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통일의 주체임을 확실

히 깨닫고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설 때 비로소 빨리 실현될 수 있다.

조국통일은 남성들만 할 사업이 아니라 우리 녀성들도 똑같이 기본동력이 되어 수행해야 할 위업이다. 그러므로 녀성들은 통일운동의 관조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며 통일운동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 뛰어들어 협소한 가정의 테두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높은 애국정신을 간직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심신을 바칠 의지를 키워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녀성들이 서로 화해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은 화해하고 단합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와 단합은 곧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데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녀성들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민족의 절반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것으로 되며 나아가서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쉽게 이룰 수 있게 된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녀성 자체의 통일운동을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애국운동을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통일운동과 련대하는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녀성들의 통일운동에 자기의 가정부터 합류하게 하고 이웃이 합세하게 하며 동과 마을, 직장이 합류하게 하고 온 나라, 온 민족이 합세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 녀성들의 자주적인 대화와 접촉을 실현하는 데도 우리는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통일문제는 온 민족의 운명, 온 겨레의 리익과 관련되는 대사인 만큼 우리 녀성도 마땅히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당국이 대화를 독점하고 민간대화를 막아나서는 것은 통일문제의 기본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대화의 근본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당국대화와 민간대화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호상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당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은 물론 우리 녀성들이 해야 할 일도 따로 있다. 그러므로 당국대화도 하고 민간대화도 하고 정치인, 경제인들도 만나고 우리 녀성들도 만나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 남, 해외 녀성들이 자주적인 대화와 접촉,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굳게 닫혀 있는 첫 관문의 빗장을 내리우고 대화의 길을 넓혀 나가는 력사적인 만남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훌륭한 첫걸음을 뗀 우리 녀성대표들의 이번 만남이 반드시 통일에로 이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토론

토론 1



히로세 레이꼬

한국에의 첫 방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1년이상 체류한 것 같은 편안함을 주어 고맙습니다. 가나가와는 700만 인구 중 5만명이 외국인인데 그 중 한국, 중국인이 65%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일본 통치기간 중 반강제적 형태로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의 남성들은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오끼나와에 이어 군수산업 기지가 있는 요꼬시까, 아스비 등 거대한 기지에서 일하였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조선에서 요꼬시까에 끌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신상을 추적한 끝에 요꼬시까의 한 절에서 유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의 잘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끊고 일본으로 끌어온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것은 '지구시민'으로서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 친구, 동지들은 일본에서 작은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가나가와 기지안에 있는 통신기지는 조선전쟁 때 미군기지로부터 해체되었다가 이제는 반영구기지로 되어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본, 한국 사이에 연대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과거 역사를 너무 모릅니다. 또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은 외국인은 식민지 시대의 일본국민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 어린이학교는 학교로 취급되지 않아서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통학권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액의 정기권을 사야합니다. 생활면에서도 차별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 근거를 따지고 대사관에 항의하는 등 이를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력하나마 계속 싸워나가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1972년 7월 4일의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남북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한민족의 민족자결을 지지합니다.

토론 2



이 경 숙

저는 오늘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여성이 만나는 이 뜻깊은 토론회에 토론자의 한사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명순 선생님이 지난 85년 제9차 적십자 평양회담에서 제 안내를 맡아주셨고, "한국에서 다음에 꼭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 염원이 실현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우

리 대한민국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로서 정부와 민간의 통일에 대한 방안이 서로 같은 북측과는 달리 통일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나는 정부의 대변인도 아니고 여성단체의 대표자도 아니며, 다만 20여년 동안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정치학도로서 그동안 생각해 온 한국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집약하여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가장 엄중한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는 1945년 미소에 의한 영토분단, 1948년 남북 각 정부의 수립에 의한 정치분단, 1950년 6.25 동란으로 인한 민족분단을 겪음으로써 3중으로 조국의 분단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분단구조는 남, 북 상호간의 대립, 경쟁, 갈등, 적대감, 오해, 불신을 심화시켰고 남북간에는 상호비방을 통해 민족자해행위를 계속해 왔으며 민족적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단절과 불신 속에서 상호비방을 지속한다면 이는 민족역량의 낭비이며, 민족존엄의 훼손입니다. 따라서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로서 매우 시급한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개방,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0여년간 남북은 서로 대결하고 적대하면서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사물을 보는 감정마저 서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전의 주제발표와 토론 및 응답 과정에서도 여성문제를 보는 견해차가 많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조형 선생이 남북회담 중 여성대표들이 없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남북회담의 대표로 나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측에도 여성대표가 없는데, 그럼에도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여성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십자사의 남북이산가족 찾기에서 남성의 8촌까지, 여성의 4촌까지 이산가족을 찾자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남북간에 공통적으로 일치해서 무척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의 차이, 또한 언어의 이질화의 차이도 심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남새집(채소상)', '인간(자녀)이 몇이냐?' 등의 표현에서 남북이 서로 달라진 민족상을 그대로 두고 하루 아침에 휴전선을 튼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로 되는 바탕을 점차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 당장은 함께 살지 못하지만 서로 막혀 있던 문을 열고 서로 왕래하고 협력관계를 넓히면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민족공동체를 이룰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정치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통일의 3원칙을 든다면 자주의 원칙, 평화의 원칙, 민주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있어 외세의 개입을 원하지 않으며 남북 당사자가 서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을 이룩하는 모든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따르며 통일 후에는 이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일된 미래의 국가는 7천만이 주인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민족복지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정부, 두 체제를 인정하는 방안은 과도기의 방안일 뿐 궁극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연방제 통일 방안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흡수통일방안은 우리의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거론해 보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북측은 그런 오해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인류공멸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11월 18일 한국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저장, 보유,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핵안전 협정을 준수한다. 세째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 세계를 지향하며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한간에 합의되면 쉽게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남북한 여성들은 우리의 인식전환을 위해 여성들간에 적대하지 않고 상호신뢰를 쌓아나가고, 둘째 민족공동체가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남북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해방 후 역사적으로 처음있는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들은 동질성과 이질성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해 나갈 길을 모색하여 통일을 향한 물꼬를 터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3. 질의 응답

질문 1 :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교과서를 진실한 내용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일본의 여성단체가 벌일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히로세 레이꼬) : 일본여성단체와 교직원 노조가 평화교육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파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권세미나 등을 통해 과거의 사실을 드러내 평화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2 :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정명순) : 85년 이경숙 선생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말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경숙 선생의 발표를 들으며 견해차이가 너무도 심함을 느꼈습니다. 이선생은 사견이라고 말했지만, 이 선생의 견해는 다분히 당국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선생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89년 11월 남한 최고당국자가 밝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입니다. 이 방안의 출발점은 북남이 민족공동체를 회복함에 있어 과도적 중간단계에서 남북연합을 실현한 후 통일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문제해결은 하나의 제도 수립으로 보고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설정의 출발점에서부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 민족이 이질화되었음을 지나치게 의식하



토론내용을 적고있는 북측의 려연구 대표와 남측의 이우정대표

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똑똑히 느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전히 동질적,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새집이란 우리가 한자식 글자를 피하고 우리 고유의 문자로 쓴 것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방의 방언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쪽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남쪽 신문에서 외국말과 한국말이 뒤섞인 언어를 보았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질화로 보겠습니까.

이런 것의 발생원인은 광복후 46년에 걸친 서로 다른 제도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습, 생활방식 등 북남간에 기본적 문제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46년간에 생긴 차이는 두 제도에 의해 빚어졌으나, 이것은 쉽게 없어질 것이며 수천년에 걸친 동질성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족적 공통성을 생각하면 통일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선생은 중간공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두개의 조선을 유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점에서 '통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신라가 통일하는데 300년이 걸렸다'하면서 2천년대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천년까지 통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95년을 통일원년으로 설정했으며, 복잡한 중간공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남연합, 이것은 국가통치 기구가 아니고 협의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4 북남공동선언으로 통일의 3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선생이 민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총선거의 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나는 총선거의 방법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남북 어디에서나 수긍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거를 통한 제도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련방제 통일 방안으로 녀성의 대표성이나 전민족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련방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며, 련방정부의 수립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녀성의 대표성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3 : 서로 다른 체제인 남북이 지금 당장 하나의 정부로 구성될 수 있다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도 결국 잠정적으로는 이념이 다른 두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이경숙) : 질문에 이미 대답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46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질성을

보지 않고 민족적 동일성만 강조하면 통일된다는 견해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살다가 46년간 이혼상태였던 부부가 '다시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중의 분단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식의 차이를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서로 만나고 방문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합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질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46년에 걸친 사회주의 교육과 자본주의 교육을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과정에서는 이념체제가 달라도 같은 쪽으로 몰고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질문 4 : 양쪽 발표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데, 양측의 발표 내용이 모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과연 이런 발표회가 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치이념 문제를 떠나 통일로 가는 작은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토론 과정에서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정명순) :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론쟁은 어차피 부딪히지 않으면 안될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론쟁이 우리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직접 몸으로 느꼈고, 통일 하려면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제도로 인한 차이, 오해, 불신이 극한에 이른 느낌인데, 그럼으로 우리 련방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충분히 더 론할 수 없는 것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 :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나타나는 견해차이를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의견의 팽팽함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아쉽기도 합니다. 양측의 발표내용은 앞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친자매처럼 만나는 만남의 광장을 앞으로도 넓혀 나갑시다.

토론회 2가 끝난뒤 오후 4시경부터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평화 통일 댕기묶기'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받았던 오색의 댕기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자의 바램을 적어 서로 서로 댕기줄을 이었다. 참가자 모두가 일어서서 통일에의 염원이 알알이 적힌 오색의 댕기줄을 흔들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는 가운데 토론장 안에는 힘찬 통일노래와 어우러져 오색 댕기줄이 물결쳤다. ■

'통일과 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 2에서는 주제발표를 한 정명순 북측대표가 시종일관 북쪽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우월성을,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경숙 씨는 역시 남쪽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서로간에 계속 평행선을 달림으로써, 서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보다는 단절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데 대해 참가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한편으로 참가자들은 앞으로는 남, 북측 모두 서로 만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통일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

토론회 3

평화와 여성

발제 : 시미즈 스미꼬(참의원 의원)
토론 : 홍선옥(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사회 : 박혜란(또하나의문화 동인)



발제문



시미즈 스미꼬

'평화와 여성'에 대한 발제를 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에 대해 무거운 가해 책임을 지는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하고 싶다.

첫째로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전후 보상 문제를 언급하겠다. 1910년 8월의 한일합병 이후 36년간 민비 살해부터 반세기에 걸쳐 일본은 조선에 개입하여 침략하고 지배해 왔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과 국가는 아직도 사죄와 보상을 다하지 않고 있다.

'병합'에 반대하는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처음에는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고 중국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서 쌀, 식료품, 지하자원, 수력자원, 노동력을 뿌리채 수탈했다. 한편으로는 '내선일체', '일시동인' 등의 내용으로 조선민족을 황국신민으로 바꾸는 정책을 수행, 조선민족의 자존심과 문화를 짓밟았다. 글과 말도 빼앗고 조선의 역사교육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으로 이름까지 빼앗고는 마지막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

다.

나아가서 1937~38년 이래로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력 확보정책으로 조선인을 강제로 일본에 연행하여 군수산업의 노동자로 혹사시켰다. 큐슈나 북해도의 탄광, 각 지역 광산, 나아가서는 비행장, 군수 산업, 위험한 터널공사에 끌고 갔고 가혹한 노동과 기아, 병, 학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한을 안고 죽어갔는지 모른다. 노동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본 정부는 조선민족을 병력으로도 강제 동원하고 많은 청년을 '황국군인'으로 전선에 보내 전사시켰으며 전후에는 B, C급 전범으로 처형받게 내버려 두었다. 군사도시였던 히로시마나 나가사끼의 원폭피해자 중에도 많은 한국인,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은 전쟁 책임자로서 충분한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전쟁정책 수행상 가장 비인도적인 죄이며 우리 일본여성의 마음에 무거운 사실로 다가오는 것은 17만명이나 20만명이라고 하는 젊은 조선 여성들이 '여자정신대'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일본 군인의 종군위안부로 성과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당했던 사실이다.

지난 10월 14일 오끼나와에서 종군위안부였던 배봉기 씨가 돌아가셨다. 1914년 생인 배봉기 씨는 말하자면 생애를 일본 식민지정책과 침략전쟁에 유린당하고 다시금 고향을 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세상을 떠났다. 패전 후의 오끼나와 '낯설은 나라에 혼자 버려졌던' 배봉기 씨는 격심한 두통과 신경통으로 고통받고 말년에는 사람 혐오증이 심해져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의 여성단체 및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등에 의한 일본 정부의 고발이나 공개서한 등 한국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일본 여성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고 늦었지만 지금 우리 일본 여성들도 여성의 손으로 '조선인 종군위안부'의 사실을 명백히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가해자측의 증인을 모으고 위안소 조사 등과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 서명운동 등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당의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추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내가 질문했을 때 정부는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음을 시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소련에 대하여 일소 공동선언으로 폐기한 청구권은 국가자신의 청구권이며 소련이나 그 국민에 대한 일본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폐기한 것이 아니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페레스트로이카 후의 소련에 대하여 일본 정부 스스로 시베리아 억류자의 명부 인도를 요구하고 유골수집 등 갖가지 요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범했던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끝났다고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이나 아시아 각지에서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본 국내에서도 책임추궁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일본사회당 방한단과 회견했던 노태우 대통령도 "한일간 수천년의 우호적 역사 중에서 얼마 안되는 한시기의 불행한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기사가 나는 것 자체가 슬프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의 김종대 회장은 "지금 일본에서는 국제적 공헌이라는 명목하에 PKO, PKF가 논의되지만 지금 일본이 해야 하는 일은 해외파병이 아니라 과거의

침략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심심한 반성과 사죄이다. 그것없이 일본의 국제적 공헌을 누가 믿겠는가?" 하고 일본 정부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 사죄하고 피해회복(**청산, 보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평화국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전쟁하지 않겠다고 명기한 헌법을 이행하는 것이며 일본과 조선민족, 나아가서는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수반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독일의 전쟁범죄 희생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을 계속하고 있다.

"죄의 유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과거를 책임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도 보지 못한다"는 바이제커 독일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에 눈을 감으려고 했던 일본의 자세야말로 아시아에 대한 경제침략, 군사대국화라는 오늘날의 일본의 모습을 낳은 것이다. 늦었으나 우리는 과거를 응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청산하여 전쟁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사는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 낼 전제가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운동에서도 "진주만에서 시작되고 히로시마, 나가사끼에서 끝난 전쟁, 우리도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고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의 가해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이다.

특히 우리 일본여성들은 전쟁 전에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참정권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군국주의의 피해자라는 면이 강조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반전, 평화운동을 하는 동안에 '일본여성들은 군국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아시아인에 대한 가해자이기도 했고 가해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여성이 한 개인의 인격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가진 오늘날, 반전평화운동에 여성이 앞장서서 싸우고 아시아의 평화에 여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는 국제적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법률로서 PKO 협력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서는 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도 연일 국회를 향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조교섭

일본은 1965년의 한일조약에서 한국에 대해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았으나 일단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28일 자민, 사회 양당 대표단과 조선로동당은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과거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게 주었던 불행과 재난,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등의 말이 담긴 8조항으로 된 공동선언에 조인했다.

이 3당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일조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이 시작되었고 이미 5

회의 교섭이 행해졌는데 이 교섭은 양국 인민의 기대에 반하여 바람직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침략전쟁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가해책임을 전후 43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다하지 않고 있고 사죄와 청산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기본인식을 결여한 데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본 의제와 상관없는 문제를 꺼내서 진전을 늦추고 미국 정부등의 영향을 받고 우왕좌왕하며 전혀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일조국교정상화 촉진의 결의나 여성단체 독자적인 요청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하여 3당 공동선언 원칙에 근거하여 성의를 가지고 교섭하도록 더 한층 역할을 할 생각이다.

핵군축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

1987년의 미국과 소련의 레이건, 고르바쵸프 양 수뇌에 의한 중거리 핵감축조약(INF)에서 시작하여 마르타 회담,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루어진 역사의 변동은 세계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금년 7월 미소는 전략병기삭감조약(START)에 조인하였다. 또한 7함의 전략핵탄두가 남은 것을 비롯, 해양발사순항 미사일(SLCM)을 현재보다 더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아직 충분하지는 않으나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규정하고 있던 미소의 군사대결, 동서 냉전구조는 끝나고 세계의 조류는 군축과 긴장완화, 대화와 협조로 향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냉전구조에서 새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가운데서 걸프전쟁은 세계를 흔들었다. 미국은 미소 협조시대의 유엔을 교묘히 이용하여 유엔결의를 배경으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이라크를 공격, 무력으로 종결지었다. 이라크, 쿠웨이트, 다국적군의 사망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하여 15만~18만명이라고 한다.

미국은 '국방계획'의 중점을 소련에서 구라파와 아시아로 옮기는 신국방전략을 내걸고 특히 일본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 자금협조를 하는 것과 미일 안보체제의 성격을 보다 쌍방적으로 바꾸는 것 즉 실질적으로 미군의 '후방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군기지 철거가 결정된 필리핀과는 거꾸로 지금 일본의 미군기지 기능의 강화가 계획되어 있다. 제일미군은 해군기로서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제7함대, 해중수상함의 중거리핵 토마호크 그리고 오끼나와, 이와구니, 미야자와의 해병대에 공군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되어 왔다.

일본에는 '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고 운반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있지만 운반에 대한 확인작업이 거의 없고 미군이 하는 대로이다. 얼마전에도 오꼬스카에는 토마호크를 장비한 호위함, 원자력 잠수함이 기항을 되풀이하였다. 오히려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핵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이념을 걸고 냉전 후의 신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공헌해야 할 일본 정부는 거꾸로 걸프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실현하려고 날뛰고 있다. 이미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을 내각에서 결정, 특례법이란 초법규적 수단으로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페르시아 만에 파견하였으며, 방위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자위대의 해외파병 반

대, PKO법안 반대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아시아의 군축

이러한 가운데서도 냉전구조 종결의 바람은 서서히 아시아로 불어오고 있다. 캄란만에서부터 소련함대의 철수, 태평양함대의 감축, 미제 7함대의 상호방문, 중소 국경문제의 해결과 병역감축 합의, 캄보디아 평화합의, 그리고 한소 국교 회복,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비롯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보다 복잡유동적으로 크게 움직이려 하고 있다. 남북고위급 회담을 비롯하여 스포츠, 음악교류 그리고 이번 서울토론회가 실현된 것처럼 민간의 갖가지 남북교류가 실현되고 있다.

작년 부시 대통령(90. 9. 27), 고르바쵸프 대통령(90. 10. 6)이 연이어 전술핵무기의 철폐 삭감안을 발표,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큰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올 10월에 개최된 제4회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북의 연형묵 총리가 9개 항목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선언'을 제안하고 나아가서 11월 8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 지금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11월 1일부터 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11월 21일 서울에서 열렸던 제23회 한미정기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발표에 의하면 93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제2단계 감축계획이 동결되었고, 동시에 38선 일대에 걸프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서는 방일중인 체니 미국방장관이 11월 22일 주일 미군의 감축계획도 동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핵확산방지조약 그 자체의 불평등성도 문제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거의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프전처럼 힘으로 굴복시키는 전쟁정책은 부당하며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20세기의 아시아는 식민지 지배, 빈곤, 일본 군정, 나아가서 제2차대전 후에도 한국전쟁과 월남전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체험했다. 21세기의 아시아는 평화로운 세계이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말할 때 빈곤과 불평등, 건강과 환경,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하여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라고 할 때 현재 지구상에 남겨진 유일한 분단국가의 통일이 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식민지 지배 36년에 이어지는 분단 46년, 1세기에 미치는 민족의 비극에 하루라도 빨리 종지부가 찍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웃 친구 중에는 통일을 바라는 많은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 어머니들이 있다. 통일조국에 돌아갈 날을 꿈꾸며 일본땅에서 늙어가는 할머니와 아직 보지 못한 조국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아가씨들이 있다. 분단에 깊은 책임을 지는 일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매일 느끼고 있다. 힘의 논리에 의한 대국 지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아니, 끝내야 한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이라는 7. 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이 이제 살려지리라고 확신한다. 일본 정부는 결코 통일을 방해하는 일 없이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통일실현

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와 일본,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 창출을 위하여 일본땅에서 여성운동을 일층 더 강화하며 넓혀가고 싶다.

이제까지의 토론에서도 명백해진 것처럼 다른 이념이나 입장, 주장의 차이를 힘으로 해결해 왔던 지금까지의 세계역사는 남성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모순을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그것은 전쟁과 연결된다. 핵전쟁사태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여성들은 차이를 인정하며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어느 나라의 여성들도 모두 자기의 정서와 생활에 뿌리를 내린 관점을 가지고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정책결정 참여가 많아지면 그 나라의 정치가 변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 조선 그리고 아시아의 여성이 힘을 합하여 일본과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나는 제안하고 싶다. 여성들의 풍부한 연대로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



토론 1



홍 선 옥

발언권을 먼저 주어 고맙습니다. 일본측의 발제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실에 도움을 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 녀성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군사력이 존재하고 냉전시대의 유물이 적지않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참화냐 평화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에는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는 평화보장을 위해 항상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불가침선언과 무력축소를 제안했고 미군과 핵무기 철거에 대한 포괄적 제기를 하여 평화보장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북남 고위급회담에서도 군사적 대결심화 해소에 대한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위험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결하여야 이런 위기가 사라질까요? 그것은 전쟁위험의 격화요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조선반도의 전쟁위험 기본원인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에 있습니다. 미군의 존재는 민족대결을 고취시키고 전쟁정책을 수행하여 아시아 평화를 교란시키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은 100여년 전부터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지금 조선반도에는 1, 500여개의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고 미국의 함대는 동해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최신무기를 반입, 핵전쟁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정전상태를 종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정전상태에서 평화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전쟁준비 책동은 평화교란의 기본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침위협이 있다느니, 전쟁억제력을 위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는 우리 조국의 남쪽을 침략한 적도 없고 남침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북침이 있을 뿐입니다. 남조선 정부도 미군의 이러한 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평화 유린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녀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미군철수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외세강점 용납은 민족의 수치이며 자주권을 유린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주인은 주인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평화없이 통일도 없으며 통일없이 평화도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미군철수 없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군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쌍방의 무력대결이 없어져야 신뢰가 조성되는 것이지 "선 신뢰조성, 후 군축"의 주장은 거꾸로 된 논리입니다. 군축이 신뢰조성의 출발점입니다.

세째로 군사대결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군사연습은 전쟁을 자극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대규모 공격연습입니다. 상륙작전, 도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이 평양이나 함흥 등과 같은 지점을 가상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도 이에 대처하려니 긴장상태가 생기고 훈련 때마다 남에는 비상경계령이, 북에는 준전시 상태가 선포되어 조선반도가 긴장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불씨가 터져도, 예를 들어 우발적인 실수도 의도적으로 생각되어 대응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동포 여러분, 누구나 고상하고 리념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은 체질적이고 본성적으로 평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평화운동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여성은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선반도에 전쟁의 포소리가 울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동족끼리 전쟁하자고 후손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불안해 하고 공포에 떨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힘과 마음을 합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토론 2



김 윤 옥

평화의 개념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가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면 적극적 평화란 전쟁이 없어도 대량학살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평화의 반대개념을 전쟁에 두지 않고 폭력에 둡니다. 이러한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잠재적 폭력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도 구조적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 가난, 부자유의 축소가 평화입니다.

여성은 폭력을 당하는 가장 밑바닥층이기 때문에 여성의 평화운동 참여 욕구는 강합니다. 원폭 피해자들은 반전반핵운동으로 나아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여민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군축운동은 방위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핵지대화운동과 반군사화운동을 펼치면서 지난 걸프전쟁 때에는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회'를 발족시키고 무기장난감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평화교육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공해운동을 시작하여 핵발전소, 핵폐기물 반대운동과 골프장 반대운동도 하는 등 광범위한 폭력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국제질서 하에서 동서냉전이 끝나고 남북열전이 시작되어 빈부의 갈등이 높아가고 군사적 다극화, 다원화로 구조화되어 지역분쟁으로 제패세력을 만들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미국, 유럽, 일본으로 3극화 되면서 힘의 불안정성이 생겨나고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보이나 이것은 힘의 조정일 뿐 신국제질서 역시 평화의 길은 아닙니다. 동북아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힘의 주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는 스티븐 솔라즈나 위컴의 발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군사행동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세계적 조처가 필요하다", "북은 제정신이 아니다"하는 말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평화를 물려주려면 여성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은 핵 삭감시대입니다. 그러니 핵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핵실험을 반대하고 전술핵 삭감을 요구합니다.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700여 개의 핵탄두가 있고 핵을 적재한 F16 전투공격기와 잠수함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핵능력은 한국보다 15년 앞서있는 상태로 38기의 원전에서 2,100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핵폐기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핵은 만들려고 생각만 해도 죄가 됩니다. 일본은 핵의 피해자 의식에서 가해자 의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에 대항하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사회운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일본의 민족주의는 군국주의와 국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주의 말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응답

사회자 : 일본의 군사력 증가가 염려스럽다는 질문지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일본 평화운동가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핵연료, 핵폐기물처리 문제를 알고 싶고 또 그것이 핵무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시미즈) : 일본은 지난 걸프전에 자위대를 해외파병할 때 각 나라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양해한다 하였으나 우리는 각 나라의 민중운동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민중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충분하지는 않으며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원칙을 지키자는 법률제정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원전은 일본 전체면적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은 인간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플루토늄의 폐기 및 처리 기술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핵 생산과정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선 인간 자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부치는 것이 일본의 국책이라 정보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핵을 관리하고 있을 뿐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원전을 없애나가고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등 아끼기, 자원 아끼기 등으로 에너지 소비 생활문화를 고쳐가야 합니다. 자원절약 운동이 곧 평화운동입니다

사회자 : 북측에 대해 들어온 질문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첫째 북측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사업 실례는 어떠한지 둘째, 북의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이며 여성들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세째, 남의 여성들은 군사비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키자는 운동을 펴고 있는데 이 운동 방향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홍선옥) : 우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군축주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국에선 최근 실제로 15만 군인을 사회주의 건설에 돌려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또 10만 군대를 제대시켜 사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군인 수를 줄였습니다.

또 여러가지 군축을 위한 제안들을 해왔는데 최근에도 군축을 위해 남조선 군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제안하였고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5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 제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원자탄 1개로 히로시마 주민 20만이 사망하고 35만이 부상했으며 지금도 그 후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에 의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50년대부터 비핵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도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남쪽 당국자에게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남조선 당국도 비핵화선언을 하였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진적 선언이어서 주목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위협의 근원인 외국의 핵무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핵위협은 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남에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미국의 핵이 1, 000여개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에만 답변해 줄 것을 요구)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철거는 도외시한 채 비핵화만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의 실험, 생산, 소유뿐 아니라 외국 핵무기의 저장, 배치, 통과도 허용하지 않고 핵전쟁을 가상한 전쟁연

습 금지도 포함한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남조선의 비핵화선언에 대해 일본의 마이니찌 신문이 '기본핵이 빠졌다'고 논평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선반도의 비핵문제를 위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거를 발언했습니다. NCND정책에 따라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던 미국이… (여기에서 사회자가 다시 한번 질문에만 답변할 것을 요구. 발언을 제지하였음).

환경오염 문제에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우선시하고 또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 노선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수준도 높아졌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생활과 환경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산업이 중요해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산에는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나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금강산의 금을 캐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협동농장이나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김책제철소 건설시에도 오염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주택을 이와 떨어진 곳에 짓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산업에 의해 건강을 해치는 일을 절대로 배제하셨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면 말았지 환경에 저촉되면 국가가 손해보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솔직히 대답하라고 하는데 제 답변이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약간의 군사비를 돌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군사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군대 4만명이 남조선에 주둔해 있고 미국의 핵무기 1, 000여개가 있으며 매해 우리가 반대하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우리도 군사에 낯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체 방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군사준비가 막강한데 다른 한쪽에서 아무 방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도 약간씩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리고 있으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군사비 지출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자 : 지금 집행부는 비슷한 질문을 모아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는 핵문제와 북

토론회 1과 토론회 2 이후 참가자들의 열가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평화와 여성'을 주제로 토론회 3이 열렸다. 박혜란(또하나의 문화동인)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주제발표를 한 시미즈 스미꼬 씨는 일본이 36년간의 식민지통치를 통해 한민족에 가한 수탈과 탄압의 역사적 사실을 일일히 열거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북측대표 홍선옥 씨는 발표도중 6. 25 북침설을 주장하여 한때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에서 진행되는 한미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이 대규모 실전연습으로 북측에 대해 심각한 준전시상태와 심리적 불안을 조성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박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토론회 일정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남북간의 주장의 차이를 인정하며, 남북에 흐르는 골을 메꾸기 위해 이러한 토론의 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염원하였다. ◆



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세분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겠습니다.

먼저 북측의 홍선옥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6.25가 남쪽의 북침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모든 나라가 남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은 이러한 남침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철수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고 군비축소를 남북이 함께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홍선옥) : 조선반도에서 북침이 있느냐 남침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북과 남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침할 생각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북침 위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침정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련방제이기 때문에 두개의 사상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남측에서 혼란과 기회가 조성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원한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련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역시 계속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침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남쪽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만이 통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이 왜 북침이 될까요? 팀스피리트와 같은 군사연습 말고도 제도에 의해 북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총선거방법을 뜻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북의 입후보가 남쪽에 와서 선거유세를 할 수 있습니까? 남쪽에서 로동당 강령을 해설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남쪽의 입후보가 북에 와서 민자당 강령을 해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쪽에 미군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태에선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독일이나 베트남과 같이 대결과 충돌과 전쟁을 낳습니다. 이와같은 점에서 남쪽의 정책이 북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남측에 대한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하여 미국은 계속

군사적 응징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평화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측의 여성운동단체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김윤옥) : 아주 어려운 질문이군요. 원칙적인 이야길하면 반공법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철저하게 핵은 생각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 이야기도 한 것이지요. 왜 이 이야기를 한반도에만 국한시킵니까? 온 세계의 핵을 없애야 합니다. 전 여성이 연대하여 지역분쟁에 집중하고 있는 신국제질서를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은 온 세계의 핵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일본측 시미즈 스미꼬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 여성들은 어떤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까?

답변(시미즈 스미꼬) :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여 민비 학살로부터 유관순에 대한 성고문에 이르기까지 정책적으로 여성의 성을 철저히 이용해 왔습니다. 국가관리 하에서 종군위안부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일본여성은 정신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6항목을 공동과제로 채택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얻도록 전국적인 연락망을 이루어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반대하는 운동도 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많은 질문 중에 두가지를 읽고서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 겸 제안입니다.

6.25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전쟁 이후 반세기가 가까워 오지만 남북 당국은 6.25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를 하면서 상호 침략에 대한 위협과 불신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상태와 과거에 대한 책임 전가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공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분의 제안이 있습니다.

조국분단 이후 서로가 그리웠던 남북여성이 조국통일을 위해 획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모성애적 사랑을 앞세워 여생을 보장할 수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부터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 고향 땅을 밟게 하고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가 조속히 이루어져 조상의 묘소를 방문하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결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사

실타래는 한번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 정

멀리 일본에서 와주신 자매 여러분, 그리고 또 정말로 오시기 어려운 여러가지 수속절차를 마치고 여기에 오신 북측의 자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300여명의 참가자에게도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태까지는 정부주도의 교류만이 있었으나 이번 토론회는 순수 민간주도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으나 재정지원자도 여러명 있었고 그 외에도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낌없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종여일 질서정연하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호텔측에도 감사합니다. 대표들에게 조그만 불편도 없도록 특별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서울 토론회에 대한 제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인사말에 대신 하겠습니다.

북측, 남측, 일본 모두가 한 문제에 얽혀있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엔 북과 남과 일본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진 실타래는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얽혀진 실타래는 한번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얽혀있다는 문제의식의 공유만으로도 해결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모임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일본이나 남, 북 모두가 문제를 가려놓고 넘어가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거북한 쪽에서도 웃으면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현실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북은 6.25를 북침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남은 남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소련의 여러가지 비밀문서, 일본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에선 북침이라고 믿는구나, 그분들 대로의 논리가 있구나, 또 북은 근거나 이유가 있어 남침이라고 믿는구나 하는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자 그것입니다. 어느 것이 역사적 진실이냐는 앞으로 서서히 증빙서류나 증명사실을 통해 서로 증명해 나갑시다. 이것이 실타래를 풀어가는 방법이지 그런 과정없이 왜 그렇게 믿느냐 공격해 보았자 해결이 안되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낀 것은 북측에게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제자, 토론자 모두가 그것을 계속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이제 냉전시대는 지났고 화해분위기 속에서 평화구축에 주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의식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이번의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군축이 먼저냐 신뢰구축이 먼저냐 하고 싸워 보았댔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축과 신뢰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계속 토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과 같은 모임도 신뢰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의식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비핵화의 3원칙이 안만들고 안가지고 안들여온다는 원칙이지요. 남측의 비핵화는 그 원칙으로 안만들고 안가진다인데 안가진다는 것에 안들여온다가 포함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반면에 비핵지대화는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련, 중국, 일본(일본은 핵은 없습니다만 핵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의 관계에서 서로 의논해야 할 문제이지 한국만으로는 비핵지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비핵지대화가 가능한 곳은 남극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남한의 인식입니다

또 북에서는 계속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한도 결코 흡수통일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은 흡수통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서독에서도 통일하여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공존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젠가 통일되는 것이지 흡수통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남한측 여성의 입장입니다. 요는 남과 북 우리 여성들의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이나 북 혼자만의 안보시대는 지나고 지역안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일본, 소련, 중국 등 아시아는 같은 운명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것, 힘없는 것, 보호가 필요한 것, 어머니가 애기를 기르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귀하게 하고 인간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고로 바뀌어야 공동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남북이 이와같은 사고와 가치의 전환에 대해 공동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끝이어 3측의 대표와 수행원 소개, 남측의 영접위원, 집행위원들이 소개된 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하나' 등의 노래를 함께 합창하였다. 3측 대표와 참가자들은 '평양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나누었으며 통일을 위한 묵상을 끝으로 토론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토론회 이모저모

○ 대표단 도착
　－도착성명서 및 기자회견
○ 여운형 선생 묘소 참배
○ 국회방문 및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및 남대문시장 방문
○ 여성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전교의 밤
○ 북측 대표단 출발
　－북측대표단의 조기귀환에 따른 성명서 및 기자회견
○ 남측, 북측, 일본측의 공동성명서
○ 일본 대표단 기자회견
○ 남측, 일본측의 공동합의문

대표단 도착 —도착성명서 및 기자회견

이번 서울토론회 준비위측의 다섯명(이효재, 안상님, 조화순, 한명숙, 윤영애)은 북측 대표단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11월 25일 오전 9시 20분 숙소인 라마다올림피아 호텔을 떠나 판문점으로 향하였다. 이효재 대표와 안상님 의전위원장은 승용차를, 나머지 준비위원들은 다른 안내원들과 함께 대형버스를 이용하였다.

11시 정각 북측 대표단 일행(대표 5명, 수행원 4명, 기자 6명)이 중립국 감시위원회 회의실을 통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이효재 대표는 려연구 대표 등 북측 일행이 모습을 드러내자 오랜 친구를 만나듯 반가움과 감격으로 이들을 얼싸안았다. 북측 일행은 환영의 꽃다발을 받은 후 판문각의 많은 북측 전송자들을 향해 꽃다발을 흔들었으며 곧 남측의 차량에 몸을 실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환담회는 난방 파이프 고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북측의 려연구 대표는 나란히 팔짱을 끼고 나오던 남측의 이효재 대표와 승용차 편으로, 나머지 일행은 버스편으로 11시 10분경 서울로 향했다.



'반갑습니다' 판문점에서 첫인사를 나누는 남북의 자매들

버스에서는 남측 집행위원 한명숙 홍보위원장과 북측 정명순 대표를 비롯, 남의 조화순 영접위원과 북의 김선옥 대표, 남의 안상님 의전위원장과 북의 홍선옥 대표, 남의 윤영애 재정위원장과 북의 최옥희 대표 등이 나란히 앉았고 나머지 수행원(정영희, 리연화, 서금선, 송선영) 들도 남측 여성안내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다섯명의 북측 대표는 모두 꽃무늬가 박혀있는 화사한 한복을 입었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양장차림이었다. 판문점의 환담일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버스안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먼저 정명순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이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신지요?



남측의 이효재대표와 북측의 려연구대표가 팔짱을 하고 판문점을 걸어 나오고 있다.

=우리 녀성들의 힘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성함은요?

=정영희입니다.

-지금 북쪽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남쪽은 이제 김장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오니까 날씨도 참으로 좋군요. 우린 11월초에 벌써 김장이 끝났습니다.

-몇 포기나 담그셨는지요?

=김치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갖다 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담그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담그기도 하지요.

조화순 영접위원과 같이 앉은 김선옥 대표에게 물었다.

-이번 토론회에 가지신 기대라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화해하고 오해를 풀고 뜻을 합해 남북통일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측에서도 신변보호 등 여러가지를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오시는 소감은요?

=통일된 땅에 마음대로 올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아이들 말입니까? 나는 욕심많은 녀성이라 아들이 두명입니다. 그러나 녀성문제를 말고 있다보니 딸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모두 대학생인데 력사와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준비위원들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행 중 미혼여성인 송선영(북조선학생위원회 문화부장)씨에게 바람직한 남편감을 물었다. '자기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 '서로 도와주는 사람', '이해심이 많고 헌신적이며 성실한 남성'이라고 대답한다. 북한 여성들이 이번 토론회를 많이 알고 있냐고 하자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인원이 제한되어 오질 못했다며 북측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 4월 평양토론회에



서울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남측의 한명숙 홍보위원장(좌)와 북측의 정명순대표

는 많이 오라고, 이렇게 혼자서만 서울에 오니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대답하였다. 버스 뒤쪽에 지원요원들과 함께 앉은 북측 기자들에게도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 기자들은 서울에 몇번 다녀간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었다.

—선생님 성함은요?

=김남수입니다.

—가족사항은 어떠합니까?

=아내, 아들, 딸 모두 셋입니다.

—남쪽엔 지금도 아들선호사상이 있는데 선생님도 아들을 좋아하십니까?

=북에도 아들선호가 아직 있습니다. 부모야 아들, 딸 누구나 다 귀하지요. 첫딸은 살림밑천 아닙니까?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 겠지요.

—부인께선 무얼하십니까? 집안 일을 많이 도와주십니까?

=집사람은 의사입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두가지 일을 하려니 부담이 무겁지요. 그래서 나도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내 사업에 열중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집사람에게 종종 꾸지람 듣습니다.

—선생님 성함은요?

=송남수입니다.

—이번엔 여성들의 모임인데 왜 여기자가 한분도 오지 않았습니까?

=남쪽 기자들은 취재경쟁이 굉장해서 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녀성들은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버스에는 이들의 서울방문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인지 연도의 시민들은 북한 대표의 입경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한편 일본측 대표단일행은 11월25일 내한하였는데 토론회 일정이 급작스레 결정되는 탓에 모두 같은 비행기로 오지 못하고 2진으로 나뉘어 서울에 도착하였다. 주최측에서는 윤정옥 대표와 김윤옥, 김장희, 한성교, 이순례 영집위원들, 취재팀 3명 등이 김포공항에 나가 일본측 대표단일행을 맞이하였다.



아시아의 평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이번 서울 토론회의 산파역할을 한 일본측 대표들이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북측의 도착 성명서

존경하는 남녘동포 녀성과 해외동포 녀성 그리고 일본대표 여러분,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우리는 온겨레의 반세기에 걸친 염원을 안고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을 따뜻이 맞아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듯이 통일도 녀성의 적극적 참가없이는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녀성들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난 6월의 동경토론회에 이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는 북남녀성 사이에 쌓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 녀성대표단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내나라, 내땅에서 북과 남의 녀성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북과 남의 모든 녀성들과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은 서울 체류기간 남녘의 여러 단체들, 각계 녀성들과 널리 접촉하여 앞으로 북남녀성들 사이의 자주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열어 나갈 대책들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모든 녀성들과 일본 녀성대표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남조선의 녀성문제와 각계 녀성들과의 접촉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서울로 떠나올 때 공화국 북반부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2년전 통일애국의 숭고한 뜻을 품고 평양을 방문하여 동족끼리 통일토의를 하고 온 것으로 하여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과 '통일의 꽃' 림수경 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들과 그 가족들, 전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씨에게 보내는 지성어린 위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방문한 기회에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림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유원호 선생과 그 가족들, 리인모 씨를 직접 위문방문하여 그들에게 북반부 인민들이 보내는 지성어린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남녘의 녀성들과 각 계층 인민들이 우리들의 서울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북측녀성대표단

1991년 11월 25일

* 위 전문은 기록자가 정리한 것으로 시간 관계상 문자 그대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여성신문 :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김일성 주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정 명 순 : 우리 녀성은 오랜세월 동안 봉건적 억압과 구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녀성운동의 역할을 깊이 헤아리고 남녀평등권 법령을 선포하여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온갖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셨습니다. 따라서 녀성은 남성과 똑같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녀성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경제생활에서도 남성과 똑같이 보장받고 있습니다. 녀성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고 있고, 또한 특별한 사회적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취업에서 녀성에 대한 사회적 구속이 철폐되었고, 경제생활 및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은 유능한 간부, 박사, 교수 등 훌륭한 사회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면에서도 자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자로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김일성 주석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오늘의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녀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차별, 사회적 불평등은 없으며 녀성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자기 직분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해방의 문제는 김주석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성신문 : 최고 중앙위원회의 핵심적 위치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명 순 :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북반부에서 최고인민회의 녀성대의원들은 138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의 6명과 비교한다면 우리 쪽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여성동아 : 북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생활면에서 가부장적 전통이 온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민족적 전통과 겹쳐지는 듯이 보입니다. 민족적 전통과 가부장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요.

=정 명 순 : 가부장적 전통, 가부장적 구속 하에서의 녀성억압과 속박은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녀성들이 공경하고 아이를 보는 좋은 품성은 계속 살리면서, 가부장적인 낡은 인습과 도덕은 사회적 교양과 녀성활동에 의해서 시정,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녀성이 완전히 해방되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습관, 관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유전되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사회보다는 시정, 극복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 수유리 몽양 선생의 묘소참배에서의 소감과 남북의 여성활동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홍 선 옥 : 려연구 선생의 아버님 묘소 참배 때 경애하시는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몽양 려운형 선생에 대한 추모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석께서는 려운형 선생과 친분관계가 깊으셨던 것을 지금도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김 선 옥 : 우리나라의 애국자인 려운형

선생을 김일성 주석께서는 여러차례 회고하셨던 적이 있으며 깊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려운형 선생은 외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참된 애국자이십니다. 외세의 압박없이 왜 암살당했겠는가? 이런 정의로운 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녀성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지난 기간동안 남조선의 녀성들은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도 녀성들은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녀성들도 청년학생처럼 더 단합하여 사회적 해방,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한 겨 레 : 독일의 통일 이후 동, 서독은 낙태문제 등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통일 후 남북간 여성문제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정 명 순 : 우리에게 있어서 성차별 및 사회적 구속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반부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혁명의 견지에서는 녀성문맹 퇴치사업 및 녀성 모두를 사회발전 구조에 맞게 대졸 수준으로 끌어올려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꾀하여 남성과 지적 영역에서 동등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켜야만 녀성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교또통신 : 정신대 문제나 원폭피해자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큰 테마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여성으로서 이 회의에서 어떻게 토의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신대로 피해당한 여성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요?

=시미즈 스미꼬 : 정신대, 원폭피해자, 사할린 교포 문제 등 일본은 모든 문제에 있어



도착기자회견장의 홍선옥대표(좌)와 정명순대표.

해결을 못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들은 반성하고 있고 여성운동단체들이 나서 반성하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고 일본국회에서 처음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회 안에서 남성의원이 질문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요즘 일본여성 사이에는 큰 흐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근대 식민지 시대의 실패를 자각하고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정식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운동이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국여성과 공동과제로 생각하고,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일본사람으로서 조선민족 전체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원폭문제, 강제연행, 일본인 관광, 탄광 광부 임금미지급의 문제 등 일본정부가 전후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보고 한국여성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

여운형 선생묘소 참배하는 려연구 대표

11월 25일 12시경 호텔에 도착한 북측 일행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려연구 대표의 부친인 여운형 선생 묘소참배를 떠났다.

검은 비로도 한복에 붉은 옷고름을 늘어뜨리고 흰색의 긴 머플러를 머리에 둘러쓴 려연구 대표는 호텔에서부터 눈시울을 붉힌 채 침통한 표정이었다. 려대표는 정명순, 리연화, 김선옥, 김선영, 최옥희씨 등과 북측 기자 네명과 함께 2시 40분경 호텔을 출발, 2시 55분 수유리 여운형 선생 묘소에 도착하였다. 려대표는 묘소로 가는 차속에서부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묘소에는 려대표의 사촌동생 여명구 씨와 그의 가족, 몽양추모사업회 회원 10여명이 미리 와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묘소 입구에서부터 흐느끼던 려대표는 김선옥 씨의 부축을 받으며 5미터 가량의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간 뒤 부친의 영정을 쳐다보면서도 아무말 없이 꽃꽂이 선 채로 20여분을 흐느꼈다.

북측 일행은 북에서 준비해온 2개의 조화를 묘소 양옆에 진열하였다. 하나는 김정일화와 김일성화로 장식하고 '몽양 려운형 선생을 추모하며, 김일성'이라고 쓴 붉은 리본을 달았고, 또 하나는 '고 아버님을 기리며 려연구, 려원구, 려봉구' 라고 쓴 붉은 리본을 단 화환이었다.

3시 20분경 려연구 대표는 묘소에 분향하고 절을 하였는데 이때 몽양추모사업회 사무총장이 "왜 성묘행사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느냐"며 화환을 치우라고 항의하였다. 화환을 둘러싸

수유리 여운형 선생의 묘소와 선생의 영정





삼팔선에 가로막혀 44년만에야 아버지묘소를 찾아온 려연구대표.

고 소란과 실랑이가 벌어진 가운데 려연구 대표는 부친에게 바치는 조사를 계속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김일성 주석의 도움으로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였다는 것과 생전의 몽양이 당시 김일성 장군에게 내렸던 높은 평가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기리는 것이었다.

진열되었던 화환도 10여분만에 북측에 의해 치워지고 조사를 모두 마친 려연구 대표는 아버지 묘소에 엎드려 다시 한번 흐느껴 울었으며, 돌아가는 길에 묘소의 흙덩이를 한웅큼 집어들어 손수건에 쌌다.

몽양추모사업회 회장이 추모시를 낭독하였고 여씨 문중에서는 려대표에게 몽양의 친필휘호 원본과 복제서판, 몽양 관련 서적, 추모사업회의 은수저 등을 선물하였다. 추모사업회는 비문을 준비중인데 려연구 대표가 내용을 수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제안하면서 친필로 비문에 넣을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려연구 대표는 '자기민족 중상은 민족적 치욕을 자상하는 것이며, 민족적 자존심을 자침하는 것이다. 1991년 11월 25일 려연구'라는 글을 남기었다.

4시경 일행은 숙소로 향하였다. ◆



려연구대표는 아버지 묘소를 떠나기 전에 묘소의 흙덩이 한줌을 집어 들었다.



아버지께 바치는 헌사도중 흐느끼는 려연구대표.

국회방문 및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11월 26일 오후 5시 45분경 남측 이효재, 이우정 대표, 안상님 의전위원장, 김윤옥 토론진행위원장과 북측, 일본측 대표들은 국회를 방문하였다. 국회 본관 입구에서는 애초 예정과 달리 이재도 국회 섭외국장이 혼자 나와 이들을 맞았다.

국회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 무렵 도영심 의원이 려연구 대표에게 다가와 인사하였다. 도의원은 대표들을 국회의장석으로 안내했으며, 려대표에게 의장석을 가리키면서 "앉아서 한번 사진 찍어보시죠?"라고 권하자 려대표는 "(통일되면) 회의를 열어 평양에서 개막식, 서울에서 폐막식을 하게 되면 그때 찍죠"라고 대답하였다.

대표들은 곧 의원회관으로 향했으며 도중에 본관 로비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사진촬영을 마친 대표단 일행은 소회의실과 대회의실로 안내되었는데 회의실을 둘러본 려대표는 "통일되어 국회가 구성되면 다 모여 함께 회의하자"고 얘기하였다.

의원사무실 방문이 끝나자 의원회관 로비에서 대표들을 기다리던 박영숙 민주당 의원이 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며, 려대표와는 반갑게 포옹을 하였고 의자에 앉아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등 잠시 환담을 나누었다.

의원회관을 나온 대표들은 국회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김주봉 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80여만권의 장서와 1만 1,000여 종류의 국내외 잡지 및 세계각국의 신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도서관 2층에서는 일본의 미끼 대표가 임시정부 자료와 사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 보기도 하였다.

한 시간여의 국회방문을 마치고 대표들은 여야 여성 국회의원 6명이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63빌딩 만찬장(58층 튜울립 홀)으로 향하였다.

만찬은 가벼운 식사와 담소로 이루어졌으며 양경자 의원의 환영사와 려연구 대표의 답사가 있었다. 려연구 대표는 실내악단에게 '아 목동아' '라르고' '카르멘' 등의 곡을 신청하여 감상하기도 하였다.



국회도서관장의 안내를 받고 있는 북측대표단 일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및 남대문시장 방문

11월 27일까지로 예정된 토론회 공식일정을 마친 후 북측과 일본측 대표단은 남측 영접위원들과 함께 27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 12시까지 2시간여 동안 박물관과 경복궁을 돌아보았다. 국립중앙박물관측에서는 2명의 안내인이 나와 대표단 일행들에게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문화재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표단이 참관하는 동안 일반 관람객의 출입은 통제되었다.



미끼 무쯔꼬대표가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북측대표단이 탄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동안 버스에는 그들이 탔음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시민들의 반응이 거의 없었다.

북측 대표단이 26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이화여대 방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남대문시장 방문을 거부하고 호텔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본측 참가자들만이 주최측과 함께 남대문시장과 롯데백화점을 방문하였다.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일본과 남측 대표단 일행

남대문시장에 들른 일본측 참가자들은 시장에 쌓인 많은 상품과 고객을 부르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생동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한편 시장의 상인들은 북측 대표단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들이 오지 않자 매우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



경복궁 뜰을 거니는 남측과 북측 대표단 일행

여성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친교의 밤

11월 27일 오후 5시 30분. 준비위원측이 마련한 '여성단체 지도자 간담회와 친교의 밤'이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북측과 일본측의 대표와 수행원 그리고 남측 대표와 집행위원, 19명의 여성단체 지도자 등 모두 47명이었다. 참가한 여성단체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국감리교 여선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기독여민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위원회, 광주전남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이었다.

북측의 려연구, 김선옥, 정명순대표와 리연화 씨는 남측에서 선물한 한복을 입고 나왔다. 남측 대표들은 북측이 선물한 한복의 소매가 너무 길어 수선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한복을 입고 나오지는 못하였다.



우리춤엔 남북이 따로 없다.
도라지타령에도 남북이 따로 없다.
우리 모두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니
이맘엔 남북이 하나구나.

남측의 이우정 대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각자 능력있는 여자들이 서로 결집되어 압력단체로 등장하여야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재능있는 여자들을 하나로 묶은 단체를 이끌고 있는 여성들이니 새역사를 창조하는 분들이라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이우정 대표는 남측의 여성단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주로 직업별 여성단체가 모였고 여성단체연합은 사회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여성단체들이 모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우정 대표의 인사말이 끝난 후 북측 려연구 대표는 '통일을 잉태하는 여성을 위하여', 미끼 대표는 '평화를 위하여', 이효재 대표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건배하였다.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각 여성단체 대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차례로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박순금 회장은 봉수교회의 이승복 목사 앞으로 한국교회여성연

합회 25주년 기념행사에 봉수교회의 성가대를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려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전국여성농민위원회 이정옥 회장은 UR타결을 앞두고 농민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소개하였으며, 기독여민회 조화순 회장은 기독여민회에서 만든 목걸이를 북측 대표에게 선물하였다.

또한 일본측 시미즈 대표와 와다나베 대표는 일본의 여성운동을 소개하였다. 일본부인회의 회장도 맡고 있는 시미즈 대표는 일본의 여성단체가 정치적 목표를 가진 단체, 개별 단체, 직업별 단체 등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일본부인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시미즈 대표는 "부인회는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향상, 생활의 평화운동 등을 주로 벌이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법률 및 집안에서 고령자를 보살피는 여성을 위한 법률 제정운동 그리고 민법상의 성차별 개정운동과 환경운동 등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달 8일 시가행진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여성들과 연대하는 모임을 현마다 만들어 가는 운동을 17년째 계속하고 있다. 특히 1972년 부터는 민주화 운동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맺고 있는데, 그중 한국의 이소선 여사의 노동운동 지원 및 Y·H 노동운동 지원활동 등이 실례라 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YWCA 회장을 역임하였던 와다나베 미네 대표도 일본 YWCA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YWCA는 초교파적 여성모임



'말은 통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여성동지입니다' 손뼉치기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일본과 남측의 대표단 일행들

으로 비기독교 회원도 있다. 주로 인권과 평화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막지 못하였다는 전후의 책임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반핵의 입장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대 기술과학에서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핵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생활운동을 펴고 있는데 예로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운동이나 쓰레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권운동으로는 재한 피폭자와 재조선 피폭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일 한국인이나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딱짓기놀이에서
열심히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는
북의 최옥희대표와
남의 이효재대표

재일대한기독교부인회의 김정려 회장은 일본의 한국인 2세들에 대한 실태를 서투나마 한국어로 설명해 주었다. 김정려 회장은 "현재 일본에는 7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식민지 시대에 강제로 이송된 사람들로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가며 살고 있다. 이들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이래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을 극복해내려고 자식교육에 많은 것을 바쳤으나 자식세대들은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빠찡고나 막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일대한기독교부인회는 처음에는 천국에 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지금은 적극적인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명운동 등을 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는 통일운동도 시작하였다. 또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차원으로 관심을 돌려서 일본인화되는 자식들에게 모국을 방문하게 하여 역사, 풍습, 말 등을 익히게 하는 활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신대 문제에 입다물고 있었던 점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북측에서도 김선옥 대표가 북의 여성활동을 설명하였다. 김선옥 대표는 "2차 토론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이렇게 만나니 감격스럽고 이제야 만난 것이 자책스럽기도하다. 북에서는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하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마음껏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민교원, 체육인, 과학자, 예술인과 같은 전문직에서도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소개하며 "북의 녀성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참된 주인으로 사회의 꽃,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북남 녀성들이 힘을 합쳐 통일

에 매진하자."고 강조하였다.

식사가 끝난 8시 50분경 윤영애 씨의 사회로 친교의 밤이 시작되었다. 먼저 짝짓기 놀이를 통해 서로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남북 참가자들의 합창, 일본 시미즈 대표의 한국말 노래('고향의 봄')가 있었고 북의 정영희 씨와 정명순 대표는 '도라지'와 '노들강변'을 불렀다. 남의 기독여민회 조화순 회장은 '그 얼굴에 햇살을' 등의 유행가 두 곡을 멋들어지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점점 흥이 돋우어지면서 남과 북의 참가자들이 북의 유행가인 '휘파람'과 '아직은 말 못해'를 불렀다. 10시 15분까지 웃음과 박수소리가 그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었던 부분은 역시 북측의 민요열창에 맞추어 남북의 여성들이 우리 춤을 덩실덩실 춘 일이었다.

3일간의 토론회와 빽빽한 공식일정으로 다소 긴장되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북측 대표들도 소탕하게 과안대소를 할 수 있었고, 서로 어울려 우리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출 때는 역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 핏줄임을 실감하였다.

5시간에 걸친 간담회와 친교의 밤 행사는 남북의 따뜻한 자매애와 동포애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시 한 번 뜨겁게 부르며 마무리하였다. ◉



이렇게 좋은날 우리 모두 얼싸안자



'우리 모두 여성의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북측대표단 출발

〈북측 기자회견〉

—조기귀환하는데 대한 소감은 무엇입니까?

=이번 북남 녀성들의 민간급 차원에서의 자주적 대화는 북남 녀성들의 정력적 준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철수하는 것은 북남 녀성들의 의사나 바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철수는 당국자의 부당한 처사에 기인한 것으로 북남녀성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북남간의 대화와 접촉을 이어가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함으로써 북남 녀성들간의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장애와 장벽을 넘어서 북남대화를 실현하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철수는 참가단 자체의 결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낸 하루 하루가 불안하고 괴로왔으며, 더이상 토론회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측에 매우 미안하지만 체류할 명분이 없어져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되지 않았던 방북인사에 대한 방문은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것 하나만이 철수의 요인은 아닙니다. 철수 이유로 삼은 것은 그 사실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철수의 직접동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며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토론회는 민족적 화해, 단합, 통일의 기본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우리측 주장이나 의사들이 매도, 왜곡되고 중상, 비방의 목소리가 많아 불안했습니다. 또 호텔 앞에서 벌어진 데모들은 온당치 못하며, 우리를 비방하는 표어와 플랭카드가 공공연히 나붙고 있는데, 이것은 당국의 비호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3차 토론회의 일정과 예정은 무엇입니까?

=1차 토론회에서 합의한 대로 평양에서 내년 봄에 개최할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느낀 소감은 무엇입니까?

=북남녀성의 자주적 접촉과 대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며, 북남간의 오해와 불신은 없어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녀성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위측에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고하셨다는데……

=예상 못한바는 아니나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최측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서는 더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기귀환이 남북의 여성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의 각계 녀성대표와 주최측에 대해서는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남의 녀성이 통일지향적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어차피 대화에서 부딪친 난관이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한명숙 홍보위원장

—북측의 조기귀환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해 보았습니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토론회 주최측은 일본 대표단과 함께 조기귀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일단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우리는 귀환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최측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북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해 데모사태 등을 항의,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일본측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북측은 내년에 평양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북측의 조기귀환이 남북교류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해보면서 사고의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생각했으며 그럴수록 좀 더 자주 만나야겠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북측과의 남은 일정은 무엇입니까?

=오전 9시 기자회견과 귀환 입장을 발표한 뒤 10시 30분 판문점으로 출발, 12시 정각 판문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려연구 대표가 하신 말씀을 전해주십시요.

=이렇게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데모를 하는데, 이것이 정부의 허락없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허락했으니 데모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이런 행위는 정부가 정면으로 민간교류를 반대하고 나서지는 못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내년 평양에서 제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돌아갈 때는 판문점까지 누가 배웅합니까?

=대표 한분과 영접위원이 가게 됩니다.

—조기 귀환결정을 사전에 통고 받았습니까?

=통고받지 못했으며, 북측은 미안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심경을 말해 주십시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절대로 다시 못바꾸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화 가능한 것이 인간사회에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삼엄한 경호 속에서도 대형 현수막이 길가에 나붙도록 어떻게 방치할 수 있었는지 정부 당국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데모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북측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측의 출발 성명서

서울시민 여러분!

남녘의 이천만 녀성 여러분!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이제 곧 출발합니다. 출발에 앞서 우리는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준 남녘동포에 뜨거운 감사를 표하며, 친절히 돌보아준 남측 실행위원회 대표 세 분과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준 국내외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제2차 서울토론회가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쁨 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녀성들이 단합하여 통일의 첫 물꼬를 튼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 대표단에게 표시해 준 동포애 넘친 환영 속에서 따뜻한 혈육의 정이 세차게 흐름을 느꼈으며 가슴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가운데 북남 녀성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토론회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자는 공동투쟁의 목소리를 다짐하였으며, 북남녀성의 현 실정 아래서 민족 공동의 통일을 위한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토론회에서 통일을 위한 련방제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토론회를 통해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통일의 넓은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벽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폭넓은 대화와 접촉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 북남녀성은 제2차 서울 토론회의 성과를 귀중히 확대발전시켜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남조선 당국이 토론회의 참가를 허용하고도 우리 활동을 여러모로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 자체가 민족의 사활적 운명과 관련된 의의있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자는 정치선전이라고 생트집을 잡고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요구하는 것을 정치선전으로 비방한다면 이 토론회의 참가를 왜 허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신변안전을 구실로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이화여대 방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고 활동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문익환 목사, 림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유인호 선생 등 방북인사에 대한 방문이라는 동포애적 요구를 합의사항의 위반이라고 거절하였으

며, 위문품 전달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급의 자주적 교류를 남조선 당국이 주저하고 겁내며 통일을 바라지 않음을 웅변적으로 실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조선 당국의 처사에 분격하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초청하고 비방·간섭하는 것은 사죄해야 하며 방북인사에 대한 무조건 석방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신변이 위협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속에서 서울에 체류한다 해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손님으로 있을 필요가 없으며 남쪽에 부담을 줄 수가 없으므로 오늘 평양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면 제3차 평양토론회 준비를 실속있게 다그쳐 평양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성대히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녘 동포들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떠납니다. 우리 대표단은 평양에 가면 북반부 형제들에게 보내는 서울시민들과 모든 남녘 녀성동포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북측녀성대표단
1991년 11월 29일

북측 대표단의 조기귀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으로부터 '약속 일정 불이행'과 '신변안전 위협'을 이유로 조기귀환을 통보받은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 우리는 이 토론회가 46년만의 첫 남북여성 민간교류로서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다 못 채우고 북측이 조기귀환하게 되어 토론회의 성공을 기대하는 남북여성들에게 실망을 끼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 우리는 북측의 조기귀환 이유의 하나인 북측대표단 숙소 주변의 반공시위 및 현수막 설치 등에 대해 신변안전 책임을 맡은 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우리는 북측의 조기귀환 이유에 대해 그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여도 그것이 일정의 조기단축으로 이어진 중대한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번복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점, 또한 이러한 결정이 주최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 이번 토론회는 남북여성 민간교류임과 동시에 일본측도 참가한 국제적인 회의이다. 따라서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는 북측이 조기귀환한다 해도 남측과 일본측은 남아서 마지막 일정까지 모두 마칠 것을 확인한다.

1991년 11월 29일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

남, 북, 일의 공동성명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토론회부터 서울토론회까지를 준비해온 우리 남, 북, 일 삼자는 모든 일정을 함께 마치지 못하고 북측이 하루 앞당겨서 떠나게 된 사태에 대하여 삼자 모두 함께 책임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46년만에 만난 이 모임이 일본여성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으며, 특히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46년간의 거리와 장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전 여성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991년 11월 29일

이우정 려연구 미끼 무쯔꼬

일본대표단 기자회견

미끼 무쯔꼬(三木睦子) 대표와의 회견

— 보수여당의 총리부인이었으면서도 진보정당인 사회당의 참의원 시미즈 스미꼬 씨와 마음을 합하여 참으로 의미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 나라의 정치풍토에선 약간 기이하게도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협동적인 일을 할 수 있으신지요?

= 아시아 평화의 문제는 아시아인 모두의 문제이지 보수냐 진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EC로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도 아시아인끼리 손을 잡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남과 북은 피를 나눈 한 형제이므로 당연히 통일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와보니 46년간의 분단이란 상황은, 핏줄만으로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 사회당 당수인 도이 다까꼬 여사가 남북평화통일에 일본인들이 도와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도이 여사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려 하였지만 일본내의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남북여성들의 뜨거운 통일열망에 힘을 얻어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인구의 절반이 찬성하면 나머지 반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 간단한 개인 소개를 해주십시오.

= 저는 191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은 정치가가 아니지만 아버지와 오빠를 비롯하여 전 집안이 정치가입니다. 미끼 씨와 결혼할 당시 미끼 씨는 협동당에 있었습니다. 미끼 씨는 3년전에 작고하였고 지금은 외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들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딸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여러 활동으로 오래 집을 비우게 되면 딸이 집안일을 처리해 줍니다.



시미즈 스미꼬(清水澄子) 대표와의 회견

— 진보정당인 사회당의 참의원으로서 보수여당의 총리부인과 힘을 합해 평화운동을 펼치고 남북통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신지요?

= 남북이 46년간 분단되어 있는 직접적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였으므로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 다같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 손잡고 일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책임완수 문제는 진보세력이 주도해온 것이 사실이나 이런 움직임은 무엇보다 책임통감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미끼 부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여당의 수상부인이었던 미끼 부인이 이러한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신 일입니다.

— 간략한 개인소개를 해주십시요.

= 저는 1928년생이므로 전후 일본에 가득찬 민주주의 열망의 한가운데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활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부터 하였습니다. 방직공장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만들고 '일하는 부인회'라는 여성조직도 만들었습니다. 여성문제에 부딪치고 보니 보육원 등에 관심이 생겼고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관들을 접하게 되면서 정치의 필요성, 여성의 정치의식 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아들,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정치가는 아니지만 저의 일에 무척 협조적입니다.

—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참가하신 소감은?



= 오늘 남과 북의 여성이 처음으로 한국땅에서 만나는 이러한 역사적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이런 의의 깊은 행사를 우리 여성들이 해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한국의 분단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어 가능한한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경에서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을 준비하시면서 이번의 후속 토론회를 기대하셨는지요?

= 처음 토론회를 개최하여 남북이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남과 북, 일본이 모여 마음을 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제1차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게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대화함으로써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이런 바탕 위에서 남북간의 불신의 벽을 차츰 허물어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믿음으로써 통일의 길로 다가서고 아울러 평화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 한국의 여성지도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효재, 윤정옥, 이우정 대표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 이우정 대표는 일본에서 열린 반핵대회에서, 윤정옥 대표는 정신대 문제 연구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되었고, 이효재 대표는 일본에 번역된 '분단시대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노동운동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그 책을 통해 한국의 여성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북분단에 대해 더욱 생각해 볼 계기를 얻게 되었구요. 일본이 남북분단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1차 토론회에 이 세 분을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 윤정옥 대표가 공동 대표인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가 일제하의 정신대 문제의 실상을 밝히려 노력하면서 일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여성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정신대 문제는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문제 등과 더불어 일본이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여성들도 지금은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정신대 문제가 일본정부에서 저지른 식민지시대의 죄악임을 자인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한국에 보상하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일본여성이 한국여성과 함께 공동과제로 설정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본사람으로서 해야할 조선사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우선 이번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지켜보면서 느끼신 소감은?

= 먼저 북측의 조기귀환으로 토론회 주최측이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했던 심정적 기분을 이해합니다. 남북총리회담의 결렬이 그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측대표가 남은 일정을 예정대로 마치고 귀환할 것을 요구하며 북측대표와 장시간에 걸친 격렬하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가진 후에 북측대표들도 이번 방문을 통해 남측의 실정과 주최측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한 대화는 단시간내에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긴 힘들지만 남측여성들을 직접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해 나가야 되고, 이 대화의 장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를 성사시키려고 활동하시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 활동은?

= 우선 나는 진심으로 남북대화를 위해 일본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남북분단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인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데 남북간에 상호방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봅니다. 나는 남북이 서로 만나 생생한 목소리로 대화함으로써 서로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하고, 기회를 자주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운동은 한반도 국민에게는 시급한 당면과제이지만, 일본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자각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은 일본인 자신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북간 여성들의 대화를 위한 중개인 역할을 기꺼이 맡게 되었습니다.

남측, 일본측의 공동합의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를 마치며

남측과 일본측 대표단은 11월 30일 오전까지로 예정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일정을 마치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와 양측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우리는 동경에서 열린 제1차 토론회에서 합의한대로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남쪽 땅에서 남북 및 일본 여성대표들이 모이는 민간차원의 남북 여성 교류를 성사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이번 서울토론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준 일본여성들이 한국땅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36년 강압적 통치와 민족적 억압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오늘날 남북 분단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솔직이 고백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여성들과의 공동연대를 천명한 것은 양국간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큰 진전임을 확인한다.
- 북측 대표단의 조기귀환으로 토론회 일정이 차질을 빚은 것은 유감스러우나 북측 대표들이 떠나가기에 앞서 남, 북 및 일본측 삼자가 내년 중으로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고, 그 구체적 일정 및 내용은 앞으로 남, 북 및 일본측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여성들의 주도 하에 순수히 민간차원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6년의 긴 세월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상호간의 많은 차이와 단절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뜨거운 민족애와 자매애를 모아 민족통일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남, 북 및 일본여성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1991년 11월 30일

서울토론회 평가회

통일의 소중한 디딤돌, 서울토론회

평가회는 북측의 조기귀환으로 남측과 일본측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남측 대표와 집행위원, 일본측 대표(와다나베 미네 대표는 전날 귀국하여 미끼 대표와 시미즈 대표만 참석함)와 수행원, 통역 등이었다. 사회는 준비위원회 이미경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사 회 : 우선 토론회에 대한 평가부터 하도록 합시다.

남 측 : 발제는 각기 균형을 이루어 좋았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있었고 성의있는 준비로 충실하였습니다.

남 측 : 발제문을 미리 받아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남 측 : 참석자 대부분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토론 1(주제 :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과 토론 2(주제 : 통일과 여성)는 질의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으나 토론 3(주제 : 평화와 여성)에서는 준비가 부족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대로 균형을 잡았고 이우정 대표께서 보충설명하신 내용이 좋았습니다. 순발력있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본측 :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고 남, 북, 일본이 서로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충실하게 준비하진 못하였으나 토론회가 이 이상 더 잘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북의 조기귀환 이유도 토론회 자체가 아니므로 토론은 완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준비가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팀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측 : 회의나 모임을 주최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무척 잘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려면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는데 나중에 그 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토론회의 참가자들도 넘치는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측 참가자의 발언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미끼 대표의 견해처럼 토론회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가 미리 발제문을 준비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역할 분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으나 일본측에서도 미리 사람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단기간 내의 결정이라 일본도 힘들었으나 그 점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남 측 : 토론 참가자를 50명 정도로 제한하여 직접 질문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남 측 : 그러나 처음 경우엔 300명이 좋았습니다. 이번 방법이 좋았습니다. 질문지 선별도 잘 했구요.

남 측 : 구태여 참석자 수를 줄일 필요는 없지요.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단지 언론의 보도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축소되었고 다소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여기자들의 노력으로 후반에는 사실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측 : 그러나 깊이있는 토의를 위해서는 전체토의와 아울러 차츰 참가자를 줄여 나가는 토의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남 측 : 이번 토론에 대해 어느 분이 '토론에 자신이 있다. 여성학 덕택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여성계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계에서도 이제부터 통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한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다루는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 측 : 이번 토론의 전체 부제가 '여성과 문화'이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토론 2와 3은 독립된 주제처럼 되었습니다. 깊이있는 토론이 되었어야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50명으로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측 : 완전동감입니다. 발제, 질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전체 일정이 너무 단시간에 이뤄졌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 주제가 서로 관련이 있어 좋았습니다. 한국여성운동의 수준이 높음을 느꼈습니다.

일본측 : '여성과 문화'라는 주제는 동경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일본의 총괄평가에서도 이 주제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 일본측도 이 주제에 대해 여성학에서의 문제와 평화운동을 서로 관련시켜 생각해 본 정도이고 북측도 별로 생각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명순 대표의 발제는 일본에서의 발제와 무척 달랐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남 측 : 육성으로 북측의 입장을 직접 들



46년만에 우리땅에서 남북의 헤어진 자매들이 함께 만난 라마다 올림피아 호텔.

은 건 참으로 좋았습니다. 통일과 평화는 서로 묶여있는 주제이므로 정치운동 차원에서보다는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통일방안이 토론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 회 : 다음은 각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방문 프로그램부터 평가합시다.

남 측 : 박물관과 경복궁을 돌아 보았는데 일본 대표단에게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박물관 쪽에서 미리 접대준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하게도 딱 한사람의 설명자가 려연구 대표를 위해 설명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본측에겐 신문기자 등 따라붙은 일행이 적어 좋았으나 일어안내자가 박물관에만 있을 뿐 경복궁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 측 : 주제가 '여성과 문화'였기 때문에 이와 연관시켜 방문하였던 것이지 관광코스는 아니었습니다. 민속촌은 민중의 생활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가려고 한 것입니다. 경주에도 가려 했으나 북측의 요구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을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

았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끝났으니 가겠다 하여 우리와 의식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남 측 : 묘소참배 프로그램은 꼭 먼저 넣어야 했는지?

남 측 : 조상에게 제일 먼저 가는 건 한국인의 전통입니다. 북측에서는 판문점에서 직접 가고 싶어했으나 려연구 대표의 건강이 염려되어 일단 호텔에 들른 것입니다.

남 측 : 남대문 시장엔 나도 처음 갔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른 탓에 시간이 남아 아까웠습니다.

일본측 : 길에 물건이 쌓여 있어 무척 풍부해 보였습니다. 소련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측 :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어 말할 수는 없었으나 독립기념관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남 측 :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 관점과 남쪽의 관점이 달라 북측은 흥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정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측 : 일정은 완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말썽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측 : 일정표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했습니다.

남 측 : 두가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방문건은 우리들도 전대협 학생들이 몰려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의 잘못입니다. 김영정 씨가 마련한 만찬건은 초청자가 각계 각층의 여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리지 않았던 점은 반성합니다.

남 측 : 일본에서부터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일본측 : 일본에서도 전체 의논이 없었음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일정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본측 : 남북이 완전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일정이 바뀌는 것을 보니 일본측이 수동적이었음을 반성합니다.



토론회 주최측의 집행위원들. 왼쪽부터 강성혜 문화위원장, 윤영애 재정위원장, 안상님 의전위원장, 김윤옥 토론진행위원장

여성단체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운동의 수준이 높음을 느낄 수 있었고, '친교의 밤'대신 간담회가 길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남 측 : 처음 일정이었던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를 우리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 그때까지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동스러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일본측 : 국회에는 몇사람만 갔었습니다. 한국의 국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려연구 대표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정 만찬에 대한 일정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가 무슨 단체인지, 왜 만찬에 부의장이 나오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 측 : 첫날에 일정설명 계획이 있었으나 너무 늦어져서 다음날 것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첫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측 : 오리엔테이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북측과도 논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 측 : 그 점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일본측 : 민속촌 방문 프로그램 대신 3차 토론회 논의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북측이 조기 귀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정표를 보고는 그 내용을 그려볼 수 없었습니다. 김영정 씨 만찬에 일본만 가니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정표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초청만찬이라면 초청자들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려연구 대표 개인적으로는 평통부의장이 초청하는 자리에 갈 수 없었으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북측을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북측의 나머지 분들은 단장이 안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남 측 : 김영정 씨 만찬에서는 너무도 실례가 많았습니다. 우리측의 통역을 배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찬 주최측에서 통역이 있다고 해서 우리 통역을 뒤에 앉게 하였는데 북측이 빠져 분위기가 침울해진 탓인지 일본측에 대해 배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영사에 대한 미끼 대표의 답사도 식사후에 하는 절로 되었었는데 환영사에 이어 곧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미끼 대표께서 순발력있게 잘 해주었으나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송구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일본측 : 나이가 많아 임기응변으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측 통역이 저의 답사를 통역할까요 했으나 환영사도 통역하지 않았으니 우리 답사도 ㅆ ㅣ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최측이 이것의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텔리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마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 측 :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곧바로 음악회를 가지려 해서 인사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자 그제서야 일본측과 한국측 일행을 일어서라고 하더니 박수 한번 쳐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국 인텔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일본측이 잘 참았습니다.

남 측 : 그 사람들 머리 속엔 북측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어 일본측 손님들에게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남 측 : 반대로 토론회 주최측이 준비한 여성단체의 간담회는 민주적인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남 측 : 간담회에서 자기 소개시간만 있어 아쉬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교의 밤' 대신 간담회를 더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일본측 : 지방에서 오신 단체장들이 참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일본측 : 식사시간이 길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좀 더 이야기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 측 : 테이블 차림이 좋지 않았습니다. 칵테일 파티처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습니다. 뷔페를 하려 했으나 인원수가 적어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측 : 게임은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일본측 : 식사로는 우동 한그릇씩으로도 좋았는데 너무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여성운동 단체들이 돈도 없는데 절약해야 됩니다. 일본은 최저의 시설에서 진행시켰지만 모두 만족했습니다.

남 측 : 호텔문제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워커힐 등등을 교섭했으나 방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보통 것으로 하려 했으나 46년만의 만남에 그럴 수는 없다고 호텔측이 모두 배려해 준 것입니다. 어제 대원각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렇게 접대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측 : 받은 입장에선 고마웠으나 불편했습니다.

남 측 :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대접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구태어 거절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본측 : 이 호텔은 참 좋았습니다. 종업원도 정성껏 대했고 친절했습니다.

남 측 : 46년만에 맞는 손님들 덕분입니다.

남 측 : 사랑의 표현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장이 소홀한 점이 없나 직접 물어보기도 하여 과소비일 지경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일본측 : 한 객실종업원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북쪽이 먼저 돌아갔는데 통일이 어렵겠지요? 어느 쪽이 나쁩니까?"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통일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 측 : 웨이터 등 젊은이들도 모두 통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썼습니다.

남 측 : 일본측의 이런 평가를 북측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 측 : 홍보위원회 쪽의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남 측 : 홍보위원은 모두 11명입니다. 비디오와 사진은 거의 완벽합니다. 일본측에도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도록 앨범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에는 부정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북측에 대한 왜곡보도와 부정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쇼'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북측에서도 항의하였습니다. 북측은 출발성명서에서 이러한 점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자들은 적극적으로 사실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장선에

북측의 조기귀환으로 평양토론회 일정논의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동경, 서울, 평양을 계획하고 시작한 토론회이니만큼 종착역인 평양에 꼭 가야합니다. 모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부과된 과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일본측대표들은 중매역을 자임하였다. 왼쪽부터 이미경집행위원장, 이효재대표, 시미즈 스미꼬대표, 미끼 무쯔꼬대표, 이우정대표.

서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축소지시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자들이 위축되었습니다. 일선 기자들은 밤새도록 일하고 편집진과 싸워가며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정적 보도가 많으나 후속작업을 통해 사실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남 측 : 텔레비전에서는 굉장히 축소하였습니다. 내용도 긍정적 측면은 다 빼버렸고 특히 처음 보도할 때 부정적 장면만을 방영하여 이 토론회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남 측 : 영자신문의 경우는 사실대로 보도되었습니다.

남 측 : 기대보다 훨씬 축소되었고 사설에 부정적 측면들이 실렸습니다. 여기자들이 무척 노력하여 후반부에 대체로 사실보도가 많았습니다. 보도진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홍보를 맡은 홍보위원들이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남 측 : 기사가 사회면에 집중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남 측 : 그래도 보수적 언론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인 건 그나마 마음 써준 것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것을 잘 보도해주길 바라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언론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남 측 : 재정위원의 말을 들어 봅시다.

남 측 : 북의 손님대접에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7,000만원 예상에 7,200만원이 모금되어 무난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기자들도 주머니를 털었고 각계에서 성금이 있었습니다.

남 측 : 문화위원은 어땠습니까?

남 측 : 환영의 밤엔 300석을 준비하여 부족했습니다. 첫날 식사가 양식이라 아쉬웠으나 한식은 음식접대가 어려워 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행사 참가자들도 모두 무료봉사였습니다. 국악, 성악, 연주, 로고를 만든 사람까지 모두 자원봉사였습니다.

일본측 : 준비위측이 행사 경험부족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명이 전체토론의 동시통역을 담당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여섯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이었

습니다. 평양에도 가고 싶습니다.

일본측 :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평양에서 있을 3차 토론회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나 북측의 갑작스런 귀환으로 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토의가 불가능했습니다. 려연구 대표는 내년 4월 27일부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측 : 어제만 해도 평양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측에서도 가셔야지요 하고 있고, 이제 민간교류의 물꼬가 터졌으니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측 : 동경, 서울, 평양을 계획하고 시작된 토론회니 토론회의 종착역인 평양에 가야 합니다. 일본은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측 : 남북총리 실무회담이 깨지고 토론회가 끝나자 곧 북측이 돌아갔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낙관적 상황이 아니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측 : 현실적인 문제로 여기에서 주제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결정된 다음 일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본 쪽의 역할이 많아져야 겠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남 측 : 지금의 심정으론 내년 4월 결정을 과연 지금 내려야 하나 하는 심정입니다.

남 측 : 한다면 4월 지나서 해야 합니다. 일본은 평양에서 5월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 측 : 보류를 원하십니까?

남 측 : 1년 정도 보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 측 : 북측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측은 정부쪽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효재 대표와 경복궁을 방문한 일본측 대표들.

일본측 : 중매인의 입장에서 북측에 감사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북에서 오라고 하면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반걸음만 내딛고 있으니 한걸음 마저 내딛읍시다. 지금은 한다 안한다 하는 입장보다 노력, 노력, 노력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3자가 충분한 이야기가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총리회담이 깨진 것이 이번 조기귀환의 배경이 아니었는지? 교류란 빨리해야 합니다. 모순과 괴로움은 있는 일이나 스스로에게 부과한 과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면 미끼 대표의 말처럼 중매인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내가 북쪽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북에 가서 여러분이 받은 고통과 여러분의 통일의지를 남한에 온 대표들보다 더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남 측 : 유일한 분단국가 극복의 과제이므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내년 5월에 화해분위기가 있을런지, 북에서 초청한다 해도 우리 정부가 허락할지 아직은 미지수

유일한 분단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방되고 신뢰도 구축될 것입니다. 가해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자청,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애쓰시는 일본측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북한대표가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들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느낀 배신감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년 5월에 남북관계가 어떨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5월 이후가 좋겠습니다. 그쪽은 정부가 하는 일이니 한다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남 측 : 양쪽 체제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도 자주 접촉하고 서로 자극을 주어야겠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마음대로 조기철수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남 측 : 통일해야 한다면 그 상대가 북쪽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취사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단시일내 서로의 차이점이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시미즈 대표가 수고를 자임하니 계속 해야만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 측 : 내년 봄 총선거가 지나고 오히려 가을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가라앉히고 조정하고 협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측 : 갈 마음이 있다면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동안 시미즈 대표를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남 측 : 세분(남측) 대표의 기본 시각엔 동감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되 통일원과도 접촉하고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합시다. 세분 대표의 방향이 옳습니다.

남 측 :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일을 두고 북한 연구도 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몇 차례의 토론도 하여 우리의 의견을 모은 후에 합시다.

남 측 : 초조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데로 자주 만나야 해빙되고 신뢰도 구축됩니다. 시간이 멀어져서야 신뢰구축이 언제되느냐는 생각에서 5월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 측 : 삼측 공동성명서에도 밝혔듯이 우리는 계속 진행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안할 수 없습니다.

남 측 : 한다는 결론은 모아졌습니다. 내일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필요는 없으나 시미즈 대표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정을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 측 : 자주 오고 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오고 갑시다.

남 측 : 미묘한 남북의 정치일정은 피합시다. 논평, 일정발표, 임무와 역할은 남측 세분 대표가 모여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사 회 : 남·북·일본측 대표단과 준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토론회가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자주 접촉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말씀들이셨습니다. 앞으로 서울토론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양토론회 참가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일동 박수). ◉

서울토론회 초청자 및 후원자 명단

- 강영미 김경희 김은정 이선애 이재희 이혜신 최진영/이상 5천원
- 이은자 전미옥/이상 2만원
- 박춘원/이상 5만원
- 이재순/이상 7만원

- 강기원 강성혜 강성혜 강신순 강영옥 강인숙 강태영
  고애신 고영자 곽광자 곽베아 곽분이 권사라 권영애
  권영자 길희영 김경선 김경숙 김경태 김경희 김령자
  김금례 김명열 김명주 김명현 김문숙 김미영 김민옥
  김방림 김봉주 김선옥 김성남 김성은 김성희 김수자
  김수홍 김순영 김순애 김순정 김순희 김승자 김신삼
  김신실 김애량 김애실 김 연 김연숙 김영미 김영주
  김옥희 김유수 김윤옥 김은경 김인숙 김정만 김정숙
  김정자 김조한 김종희 김주숙 김지선 김춘옥 김해나
  김해분 김현숙 김화자 김희영 나선길 나선정 남인숙
  노미혜 류석연 문복희 문용녀 민설자 박경숙 박경옥
  박금순 박금옥 박금혜 박남식 박민자 박영선 박상희
  박순미 박영옥 박영혜 박영희 박완서 박인숙 박은주
  박정희 박재희 박중련 박태연 박현선 박혜덕 방정복
  백송자 번지숙 변광순 변혜정 서재숙 서초동지점 설옥자
  설호정 손봉숙 손승희 손정연 송정숙 송창우 성봉희
  신낙균 신복순 신선자 신영순 신진화 신현순 신혜수
  신희운 아다게이꼬 안계희 안성례 안일순 안정선 안혜경
  안후교 양희숙 엄마리 여귀옥 여명구 여세현 오경자
  오부자 오세현 오유석 유시춘 유옥순 유춘자 윤정섭
  윤경희 윤기선 윤문자 윤수경 윤숙희 윤순녀 윤순덕
  윤영렬 윤영애 윤호미 윤후정 원금순 이경주 이경숙
  이계경 이광자 이금라 이기옥 이난호 이동원 이문우
  이미경 이미일 이민영 이범준 이상화 이송죽 이수연
  이숙형 이순우 이승자 이승희 이열희 이영숙 이영자
  이영희 이예자 이옥선 이온죽 이은재 이윤정 이정숙